

GOOD  
NEWS  
FOR  
YOU

신약 성경 요한복음과 로마서

# 구원을 통해 인생의 의미를 알려 주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이 책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중한지, 그리고 그 말씀이 왜 우리에게 주어졌는지를 분명히 보여 주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성경은 단순한 종교 서적이 아니라,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지를 알려 주는 하나님의 살아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언제나 구원이며, 구원은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보다 더 중요하거나 더 시급한 것은 없습니다. 사람은 이 문제를 외면한 채 참된 평안과 소망을 가질 수 없습니다.

성경은 모두 66권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그 가운데 요한복음과 로마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 사람이 어떻게 은혜로 구원받는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의롭다 함을 받는지를 가장 분명하고 체계적으로 보여 주는 책들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유일한 구원자로 증언하며, 믿음을 통해 영생을 얻는 길을 밝히 드러냅니다. 로마서는 죄인인 인간의 상태와 하나님의 거룩하심, 은혜로 주어지는 구원,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교리적으로 깊이 있게 설명해 줍니다.

이 책은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을 바탕으로 요한복음과 로마서를 편집하여 쪽복음 형태로 구성하였고, 그 뒤에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을 부록으로 덧붙였습니다. 이 책을 받는 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말씀을 차분히 읽고, 뒤에 실린 구원의 설명을 통해 복음의 진리를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로 영접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땅에서 새 생명으로 살 뿐 아니라, 영원히 무궁토록 사는 참된 복을 누리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돌로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는 분이시니 그분의 눈앞에서 드러나지 아니하는 창조물이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우리와 상관하시는 분의 눈에 벌거벗은 채 드러나 있느니라(히브리서 4장 12-13절).



성도 요한이 전한 복음

## 요한복음

기록자: 요한, 기록 시기: 주후 90년경, 성격: 역사와 교리  
기간: 영원 전 과거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 나타나심까지  
수신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20:31). 요한은 이 복음서를 통해 당시 유행하던 플라톤 사상 즉 앞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이 내려와 모든 것을 확실하게 할 것이라는 사상을 논박하였다. 그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모든 생각이 들어 있으므로 그분의 말씀을 듣는 자는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 그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 주었다. 이름: '요한복음'이라는 책명은 이 책을 기록한 사도의 이름에서 유래하였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를 뜻하는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제자이며(13:23; 20:2) 신약 성경은 35회나 그의 이름을 언급한다. 그는 주후 50년경 예루살렘 회의에 참석했고 그 뒤 소아시아에 감독으로 가서 대부분의 시간을 에베소에서 보냈으며 밧모 섬에 유배되어 계시록을 기록하였다. 주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목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이 구원받을 것을 보여 주는 것, 내용: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 전 존재, 출생 후의 삶과 사역, 죽음, 부활 그리고 부활 후의 나타나심 등을 기록한다.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같은 공관복음이 아니다. 공관복음은 주로 역사적 사건을 기록했으나 요한복음은 그리스도의 증언과 가르침의 영적 교훈을 상술했다. 그리스도는 죄로 인한 어린양이시고(1:29) 목마른 자를 위한 생수이시며(4:14) 배고픈 자를 위한 빵이시고(6:35) 어둠에 있는 자들을 위한 빛이시다(8:12). 또한 그분은 성도들을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인도하는 문이시고(10:9) 길 잃은 자들을 위한 선한 목자이시며(10:11) 영광으로 향하는 길이시고(14:6) 영적 성장을 위한 참 포도 나무이시다(15:1). 이 모든 것은 사람의 영적 필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것이다. 요한복음은 21장, 879절, 18,658개 영어 단어로 구성되어 있다. 핵심 장: 1장(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심), 핵심 절: "이것들을 내가 기록함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믿고 그분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20:31), 핵심 단어: 아버지(100회 이상), 믿다(98회 이상), 영원한 생명(35회), 핵심 구: '믿는 자는'(3:18, 36), 요한복음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1:14, 18), 영적 교훈: 누구든지 그분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는다.

### 제 1 장

#### 영원한 말씀

1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2 바로 그분께서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만들어진 것 중에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더라.

4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고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더라.

5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되 어둠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 요한의 증언

6 ¶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요한이더라.

7 바로 그가 그 빛에 대해 증언하려고 증인으로 왔으니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통해 믿게 하려 함이라.

8 그는 그 빛이 아니요 그 빛에 대해

증언하도록 보내어진 자더라.

9 그것은 세상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 빛이었느니라.

10 그분께서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되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며

11 그분께서 자기 땅에 오셨어도 그분의 영광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나

12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13 이들은 혈통이나 육신의 뜻이나 사람의 뜻에서 태어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느니라.

14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5 ¶ 요한이 그분에 대해 증언하며 외쳐 이르되, 이분은 내가 전에,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나보다 앞서신 것은 그분께서 나보다 먼저 계셨기 때문이라, 하고 말한 분이라, 하니라.

16 우리가 다 그분의 충만하심에서 받았으므로 은혜를 대체하는 은혜니

17 이는 율법은 모세에 의해 주어졌으나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왔기 때문이라.

18 아무도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으되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자께서 그분을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마3:1-12; 막1:2-8; 눅3:1-20)

19 ¶ 유대인들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예루살렘에서 보내어, 네가 누구냐? 하고 요한에게 물을 때에 그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20 그가 시인하고 부인하지 아니하며 시인하여 이르기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매

21 그들이 그에게 묻되, 그러면 무

엇이냐? 네가 엘리야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매 또 그들이 묻되, 네가 그 대언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아니라, 하므로

22 그때에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우리를 보낸 자들에게 우리가 대답하게 하라. 너는 너 자신에 대해 무어라고 말하느냐? 하니

23 그가 이르되, 나는 대언자 이사야가 말한 것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 하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하니라.

24 보내어진 자들은 바리새인들에게서 왔더라.

25 그들이 그에게 물으며 그에게 이르되, 그런즉 네가 그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대언자도 아니라면 어찌하여 침례를 주느냐? 하매

26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침례를 주나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분이 너희 가운데 서 계시는데

27 그분은 곧 내 뒤에 오시지만 나보다 앞서신 분이시니라. 나는 그분의 신발 끈을 풀 자격도 없노라, 하더라.

28 이 일들은 요한이 침례를 주던 곳인 요르단 건너편 벳다바라에서 이루어졌더라.

하나님의 어린양

29 ¶ 다음 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이르되,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양을 보라.

30 이분은 내가 전에, 내 뒤에 한 사람이 오시는데 그분께서 나보다 앞서신 것은 그분께서 나보다 먼저 계셨기 때문이라, 하고 말한 분이라.

31 내가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그분께서 이스라엘에게 드러나셔야 하므로 내가 와서 물로 침례를 주노라, 하니라.

32 또 요한이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사 그분 위에 머무셨더라.

33 내가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주게 하신 분, 바로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성령이 누구에게 내려와 그 위에 머무는 것을 내가 볼 터인데 바로 그 사람이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분이니라, 하셨기에

34 내가 보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첫 두 제자

35 ¶ 다시 다음 날 요한이 자기 제자들 중 두 사람과 함께 서 있다가

36 예수님께서 걸으실 때에 그분을 보고 이르되, 하나님의 어린양을 보라! 하매

37 그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므로

38 그 때에 예수님께서 돌아서서 그들이 따르는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하시니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랍비여, 어디에 거하시나이까? 하니라.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님이라는 말이다.)

39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와서 보라, 하시므로 그들이 가서 그분께서 거하시는 곳을 보고 그 날 그분과 함께 머물렀으니 이는 때가 열 시쯤이었기 때문이더라.

40 요한의 말을 듣고 그분을 따르는 두 사람 중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더라.

41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서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였는데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니라.

42 안드레가 그를 예수님께 데려오매 예수님께서 그를 바라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나의 아들 시몬이지만 게바라 불리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돌이니라.

빌립과 나다나엘

43 ¶ 그 다음 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

니라.

44 한편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의 도시인 벳새다 출신이더라.

45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서 그에게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대언자들이 기록한 분을 우리가 만났는데 그분은 곧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님이시니라, 하매

46 나다나엘이 그에게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하니 빌립이 그에게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47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 오는 것을 보시고 그에 대하여 이르시되,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을 보라, 그의 속에는 간사함이 없도다! 하시니

48 나다나엘이 그분께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밑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 하시므로

49 나다나엘이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 이시요 선생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시니이다, 하매

50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무화과나무 밑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고 네게 말하였으므로 네가 믿느냐? 네가 이것들보다 더 큰 일들을 보리라, 하시며

51 또 그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는 너희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람의 아들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 제 2 장

가나의 혼인 잔치

1 셋째 날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 잔치가 있어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 있었고

2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도 혼인 잔치에 초대를 받았더라.

3 그들에게 포도즙이 떨어지매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분께 이르되, 그들에게 포도즙이 없다, 하니

4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셨으나

5 그분의 어머니는 종들에게 이르되, 그분께서 너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것을 하라, 하니라.

6 거기에 유대인들의 정결하게 하는 관례에 따라 각각 물 두세 통 담은 돌 항아리 여섯 개가 놓여 있으므로

7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물 항아리들을 물로 채우라, 하시니 그들이 그것들을 가장자리까지 채우므로

8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떠서 잔치를 맡은 자에게 가져다 주라, 하시니 그들이 그것을 가져다 주매

9 잔치를 주관하는 자는 포도즙이 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그 물을 떠 온 종들은 알더라.) 잔치를 맡은 자가 신랑을 불러

10 그에게 이르되, 모든 사람이 처음에 좋은 포도즙을 내놓고 사람들이 충분히 마신 뒤에 덜 좋은 것을 내놓는 때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즙을 남겨 두었도다, 하니라.

11 예수님께서 기적들 중의 이 처음 기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을 믿으니라.

12 ¶ 이 일 뒤에 그분께서 자기 어머니와 자기 형제들과 자기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그들이 거기에 여러 날 있지는 아니하니라.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심 (마21:12-13; 막11:15-17; 눅19:45-46)

13 ¶ 유대인들의 유월절이 가까이 오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사

14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자들과 돈 바꾸는 자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는

15 가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들과 소들과 함께 그들을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돈을 쏟으시며 탁자들을 뒤엎으시고

16 비둘기 파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이것들을 여기서 가져가고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하시니

17 그분의 제자들이, 주의 집에 대한 열심이 나를 삼켰나이다, 하고 기록된 말씀들을 기억하더라.

18 ¶ 그때에 유대인들이 응답하며 그분께 이르되, 네가 이런 일들을 행하니 우리에게 무슨 표적을 보이겠느냐? 하매

19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을 헐라. 사흘 안에 내가 그것을 일으켜 세우리라, 하시니

20 그때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을 짓느라 사십육 년이 걸렸는데 네가 그것을 사흘 안에 세우겠느냐? 하더라.

21 그러나 그분께서는 성전인 자기 몸을 두고 말씀하셨더라.

22 그러므로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신 뒤에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서 자기들에게 이것을 말씀하셨음을 기억하고 성경기록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사람의 속 중심을 아시는 분

23 ¶ 한편 유월절이 되어 그분께서 명절날 예루살렘에 계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분께서 행하신 기적들을 보고 그분의 이름을 믿었으나

24 예수님께서 자신을 그들에게 맡기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분께서 모든 사람들을 아셨기 때문이요,

25 또 사람에게 대해 누가 증언하는 것도 필요로 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분께서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기 때문이더라.



## 제 3 장

구원: 다시 태어나는 것

1 바리새인들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유대인들의 치리자더라.

2 바로 그가 밤에 예수님께 와서 그분께 이르되, 랍비여,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알고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당신이 행하시는 이 기적들을 행할 수 없나이다. 하매

3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하시므로

4 니고데모가 그분께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그가 자기 어머니 태에 두 번째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나이까? 하매

5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에게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6 육에서 태어난 것은 육이요 성령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7 내가 네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한 것에 놀라지 말라.

8 바람이 자기가 원하는 곳에서 불 때 내가 그것의 소리는 들어도 그것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나니 성령에게서 태어난 자도 다 이러하니라. 하시니라.

9 니고데모가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어찌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나이까? 하매

10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11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우리가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도다.

12 내가 너희에게 땅의 것들을 말하였어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하늘의 것들을 말하면 어떻게 너희가 믿겠느냐?

13 하늘로부터 내려온 자 곧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지 아니하였느니라.

14 ¶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그렇게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15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16 ¶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7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18 ¶ 그를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아니하나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미 정죄를 받았느니라.

19 정죄의 근거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나 사람들이 자기 행위들이 악하므로 빛보다 오히려 어둠을 사랑한 것이니라.

20 이는 악을 행하는 자마다 자기 행위들이 드러나서 책망을 받을까 염려하여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도 아니하기 때문이라.

21 그러나 진리를 행하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것은 그가 자기 행위들을 나타내되 그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침례자 요한이 그리스도를 높임

22 ¶ 이 일들 뒤에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이 유대 땅으로 들어갔는데

그분께서는 거기에서 그들과 함께 지 내시며 침례를 주시더라.

23 ¶ 살림에 가까운 애논에 많은 물이 있었으므로 요한도 거기에서 침례를 주고 있었으며 사람들이 와서 침례를 받았으니

24 이는 요한이 아직 감옥에 갇히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25 ¶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 중 몇 사람과 유대인들 사이에 정결하게 하는 일에 대하여 논쟁이 벌어지매

26 그들이 요한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르단 건너편에 계시던 분 곧 선생님께서 증언하신 분, 바로 그분께서 침례를 주시니, 보소서, 모든 사람들이 그분께 가나이다. 하매

27 요한이 응답하여 이르되, 주께서 하늘로부터 사람에게 무엇을 주지 아니하시면 그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28 너희 자신이 나에 대하여 증언하되 내가 이르기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분 앞에 보내어진 자라, 한 것을 증언하느니라.

29 신부를 얻는 자는 신랑이지만 서서 신랑의 말을 듣는 신랑의 친구가 신랑의 음성으로 인해 크게 기뻐하니 그러므로 나의 이 기쁨이 성취되었노라.

30 그분은 반드시 흥하여야 하되 나는 반드시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31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자는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며

32 그분께서는 자신이 보고 들은 것, 그것을 증언하시되 아무도 그분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도다.

33 그분의 증언을 받아들이는 자는 하나님께서 진실하시다는 것에 자기 도장을 찍었느니라.

34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말씀하시나니 이는 하나

님께서 그분에게 상형을 한량없이 주시기 때문이라.

35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모든 것을 그분의 손안에 주셨으니

36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 제 4 장

사마리아 여인이

자신의 메시아를 만남

1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요한보다 더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침례를 주신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었음을 주께서 아시고

2 (그러나 예수님께서 친히 침례를 주지 아니하시고 그분의 제자들이 주었더라.)

3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떠나가실 때에

4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하셔야 하므로

5 그때에 수가라 하는 사마리아의 도시로 가시는데 이/곳은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의 구역에서 가깝고

6 당시 거기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그러므로 여행하며 지치신 예수님께서 우물에 그대로 걸터앉으시니 때가 여섯 시쯤이더라.

7 한 사마리아 여자가 물 길으러 오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마실 물을 내게 달라, 하고 말씀하시니

8 (이는 그분의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도시로 갔기 때문이더라.)

9 그때에 사마리아 여자가 그분께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어찌 사마리아 여자인 내게 마실 물을 달라고 하시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10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네게, 마실 물을 내게 달라. 하고 말하는 자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네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하시니

11 여자가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 이여, 선생님께는 물 길을 그릇도 없고 우물은 깊은데 선생님은 그 생수를 어디에서 얻겠나이까?

12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그와 그의 아이들과 그의 가축들도 이 우물에서 마셨는데 선생님이 그보다 더 크시나이까? 하매

13 예수님께서서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를 것이나

14 누구든지 내가 줄 물을 마시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그에게 줄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솟아나는 우물이 되어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15 여자가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 이여, 이 물을 내게 주사 내가 목마르지 않게 하시고 여기로 물 길으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하매

16 예수님께서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부르고 여기로 오라, 하시니

17 여자가 응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하매 예수님께서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네가,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하고 잘 말하였도다.

18 내게는 다섯 남편이 있었고 지금 내게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그 점에서 네 말이 참되도다, 하시니라.

19 여자가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 이여, 내가 보니 선생님은 대언자시니이다.

20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경배하였는데 당신들은 이르기를, 사람들이 이 경배해야만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나이다. 하매

21 예수님께서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너희가 이 산에서도 아버지께 경배하지 아니하

고 예루살렘에서도 경배하지 아니할 때가 오느니라.

22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에 경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경배하는 것을 아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들에게서 나기 때문이다.

23 그러나 참되게 경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경배할 때가 오는데 바로 지금이다.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그렇게 경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기 때문이다.

24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로 그분께 경배할지니라, 하시니라.

25 여자가 그분께 이르되, 메시아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분이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분께서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리이다, 하매

26 예수님께서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내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수확할 밭이 희게 됨

27 ¶ 이때에 그분의 제자들이 와서 그분께서 그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이상히 여겼으나 아무도,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녀와 말씀하시나이까? 하고 말하지 아니하더라.

28 그때에 여자가 자기의 물 항아리를 버려두고 자기 길로 가서 도시로 들어가 사람들에게 말하되,

29 와서 지금까지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보라.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30 그때에 그들이 도시에서 나와 그분께 오더라.

31 ¶ 그 사이에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간청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잡수소서, 하였으나

32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하시니

33 그러므로 제자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그분께 잡수실 것을 가져다 드렸는가? 하매

34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끝마치는 것이니라.

35 너희가 말하기를, 아직 넉 달이 남아 있고 그 뒤에 수확할 때가 온다. 하지 아니하느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들을 보라. 그것들이 이미 희게 되어 수확하게 되었도다.

36 거두는 자가 샅을 받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것은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다 함께 기뻐하려 함이라.

37 이 점에서,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그 말이 참되도다.

38 내가 너희를 보내어 너희가 수고하지 않은 것을 거두게 하였나니 다른 사람들은 수고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수고에 참여하였느니라, 하시니라.

#### 세상의 구원자

39 ¶ 그 도시의 사마리아 사람들 중 많은 이들이 그 여자가 증언하는 말 즉, 지금까지 내가 행한 모든 일을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하는 말로 인해 그분을 믿더라.

40 이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분께 와서 그분께 간청하여 그분께서 자기들과 함께 머무실 것을 구하므로 그분께서 거기에 이들을 머무시매

41 그분의 말씀으로 인해 더욱 많은 사람이 믿고

42 그 여자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 때문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직접 그분의 말씀을 들었고 이분께서 참으로 세상의 구원자 그리스도이심을 알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43 ¶ 한편 이를 뒤에 그분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들어가시니

44 이는 예수님께서 친히 증언하시기를, 대언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아무 존경도 받지 못하느니라, 하셨

기 때문이라.

45 그때에 그분께서 갈릴리로 들어가시매 갈릴리 사람들이 그분을 받아들이니 이는 그들도 명절을 지키러 갔다가 그분께서 명절에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기 때문이더라.

예수님께서 귀족의 아들을 고치심

46 이렇게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가나로 들어오셨는데 이곳은 그분께서 물을 포도즙으로 만드신 곳이더라. 어떤 귀인이 있었는데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으므로

47 그가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나와 갈릴리로 들어오셨다는 것을 듣고 그분께 가서 간청하여 그분께서 내려와 자기 아들을 고쳐 주실 것을 구하니 이는 그 아들이 죽게 되었기 때문이더라.

48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지 않으면 믿으려 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시니

49 그 귀인이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하므로

50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길로 가라. 네 아들이 살아 있다, 하시매 그 사람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믿고 자기 길로 가더라.

51 이제 그가 내려가고 있을 때 그의 종들이 그를 만나 그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당신의 아들이 살아 있나이다, 하니

52 그때에 그가 자기 아들이 낮기 시작한 시각을 그들에게 물으매 그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제 일곱 시에 열병이 아들에게서 떠났나이다, 하므로

53 이에 그 아버지가 그때가 바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네 아들이 살아 있다, 하고 말씀하신 그 시각임을 알고 그와 그의 온 집이 믿으니라.

54 이것은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나와 갈릴리로 들어오신 뒤에 다시 행하

신 두 번째 기적이니라.

## 제 5 장

예수님께서 병약한 자를 고치심

1 이 일 뒤에 유대인들의 명절이 있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니라.

2 한편 예루살렘의 양 시장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연못이 있고 저기에 주랑 다섯 개가 있는데

3 허약한 자들, 눈먼 자들, 다리 저는 자들, 몸이 오그라든 자들의 큰 무리가 이 주랑들 안에 누워 물이 움직이는 것을 기다렸으니

4 이는 어떤 때에 천사가 연못에 내려와 물을 휘저었고 물이 휘저어진 뒤에 누구든지 그때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무슨 병에 걸렸든지 온전하게 되었기 때문이더라.

5 저기에 삼십팔 년 동안 병약함을 지닌 어떤 사람이 있더라.

6 예수님께서 그가 누운 것을 보실 때에 그가 그런 상태로 이미 오랫동안 있었음을 아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게 되기를 원하느냐? 하시니

7 그 허약한 사람이 그분께 대답하되, 선생님이여, 물이 휘저어질 때에 나를 연못에 넣어 주는 사람이 내게 없어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나보다 먼저 내려가나이다, 하매

8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9 즉시 그 사람이 온전하게 되어 자기 자리를 들고 걸어갔는데 바로 그날은 안식일이더라.

10 ¶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병 나은 자에게 이르되, 오늘은 안식일이니 네가 네 자리를 나르는 것은 율법에 어긋나느니라, 하매

11 그가 그들에게 응답하되, 나를 온전하게 하신 분, 바로 그분께서 내게,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고

말씀하셨느니라, 하니

12 그때에 그들이 그에게 묻되, 네게,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고 말한 자가 누구냐? 하였으나

13 병 고침을 받은 자는 그분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곳에 무리가 있으므로 예수님께서 이미 자리를 옮기셨기 때문이라.

14 그 뒤에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그를 만나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가 온전하게 되었으니 더 심한 것이 네게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시매

15 그 사람이 떠나서 자기를 온전하게 하신 분은 예수님이라고 유대인들에게 말하니라.

아버지와 아들을 공경하라

16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뺨박하며 죽이려 하였으니 이는 그분께서 안식일에 이 일들을 행하셨기 때문이라.

17 ¶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18 이런 이유로 유대인들이 더욱더 그분을 죽이려 하였으니 이는 그분께서 안식일을 어기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께서 자기 아버지라고 말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하게 만드셨기 때문이더라.

19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은 아버지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 것을 보고 그 일을 할 뿐이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니라. 이는 그분께서 무슨 일들을 하시든지 이것들을 아들도 똑같이 하기 때문이니라.

20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하는 모든 것을 그에게 보이시고 또 이것들보다 더 큰 일들을 그에게 보이사 너희를 놀라게 하시리니

21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키사 그들을 살리시는 것같이 그렇게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

니라.

22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모든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23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들을 통한 생명과

아들을 통한 심판

24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정죄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25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고 있는데 바로 지금이라. 듣는 자들은 살리라.

26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 안에 생명이 있는 것같이 그렇게 아들에게도 주사 그의 안에 생명이 있게 하셨고

27 그가 사람의 아들이므로 그에게 또한 심판을 집행할 권위를 주셨기 때문이니라.

28 이 말에 놀라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의 음성을 듣고 나올 때가 오고 있는데

29 선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들은 정죄의 부활로 나오리라.

30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나는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내가 내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구하므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예수님에 대한 네 증인

31 내가 만일 나 자신에 대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나

32 ¶ 나에 대하여 증언하시는 다른 분이 계시며 나는 그분께서 나에 대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되다는 것을 아노라.

33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

때 그가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으나  
34 나는 사람에게서 나온 증언은 받지 아니하며 다만 너희가 구원을 받도록 이것들을 말하노라.

35 그는 타오르면서 빛을 내는 등불이었으므로 너희가 한동안 그의 빛을 기뻐하기 원하였으나

36 ¶ 내게는 요한의 증언보다 더 큰 증언이 있나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끝마치게 하시는 일들 즉 내가 행하는 바로 그 일들이 나에 대하여 증언하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증언하며

37 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에 대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분의 모습을 보지 못하였으며

38 또 그분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분께서 보내신 자를 너희가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39 ¶ 성경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는데 그것들은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들이니라.

40 그런데도 너희는 생명을 얻기 위해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41 나는 사람들에게서 존귀를 받지 아니하노라.

42 그러나 나는 너희를 아노니 곧 너희가 너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있지 않음을 아노라.

43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는데 너희가 나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자가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가 그를 받아들이리라.

44 너희가 서로에게 존귀를 받으면서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나오는 존귀는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믿을 수 있느냐?

45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하리라고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자가 있으니 곧 너희가 신뢰하는 모세니라.

46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나에 대하여 기록하였기 때문이라.

47 그러나 너희가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들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 제 6 장

예수님께서 오천 명을 먹이심

(마14:13-21; 막6:30-44; 눅9:10-17)

1 이 일들 뒤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2 큰 무리가 그분을 따라오니 이는 그분께서 병든 자들에게 행하신 그분의 기적들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이더라.

3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사 자기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셨는데

4 유대인들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이 왔더라.

5 ¶ 그때에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빵을 사서 이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6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친히 행하실 것을 아셨으므로 그를 시험하려 하심이더라.

7 빌립이 그분께 대답하되, 그들이 각각 조금씩 받을지라도 이백 데나리온어치의 빵이 그들에게 충분하지 아니하리이다, 하매

8 그분의 제자들 중 하나이며 시몬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가 그분께 이르되,

9 여기 한 소년이 있는데 그가 보리빵 다섯 개와 작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무슨 소용이 있겠나이까? 하니

10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그 사람들을 앉게 하라, 하시니라. 한편 그곳에 잔디가 많으므로 그 사람들이 앉았는데 수가 오천쯤 되더라.

11 예수님께서서 빵들을 집어 감사를 드리신 뒤에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니 제자들이 자리를 잡은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그와 같이 그분께서 물고기들도 그들이 원하는 만큼 주시니라.

12 그들이 배부른 뒤에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아 있는 조각들을 거두어 하나도 잃지 않게 하라, 하시므로

13 제자들이 그것들을 함께 거두어서 빵을 먹은 자들이 충분히 먹고도 남긴 보리빵 다섯 개의 조각들로 열두 바구니를 채웠더라.

14 그때에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서 행하신 그 기적을 보고 이르되, 이분은 진실로 세상에 오실 그 대언자시니라, 하더라.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심

(마14:22-27; 막6:45-52)

15 ¶ 그러므로 그들이 와서 억지로 자기를 데려다가 왕으로 삼으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떠나시니라.

16 이제 저녁이 되매 그분의 제자들이 바다로 내려가

17 배에 오른 뒤 바다를 건너 가버니움 쪽으로 가는데 이제 날이 어두워졌으나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에게 오지 아니하셨으며

18 큰 바람이 불어 바다가 출렁이더라.

19 이에 그들이 노를 저어 이십오 내지 삼십 스타디온쯤 가다가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시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였으나

20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므로

21 그때에 그들이 그분을 반가이 배로 받아들였고 즉시 배는 그들이 가려던 땅에 닿았더라.

하늘에서 온 빵

22 ¶ 그다음 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사람들이 그분의 제자들이 탄 배 외에는 다른 배가 거기 없었다는

것과 또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과 함께 그 배로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그분의 제자들이 따로 간 것을 보았더라.

23 (그러나 주께서 감사를 드리신 일이 있는 뒤에 디베랴에서 떠난 다른 배들이 그들이 빵을 먹던 곳으로 가까이 왔더라.)

24 그러므로 사람들이 저기에 예수님도 계시지 않고 그분의 제자들도 없는 것을 보고는 자기들도 배를 타고 예수님을 찾으며 가버나움으로 가서

25 바다 건너편에서 그분을 만나 그분께 이르되, 랍비여, 언제 여기로 오셨나이까? 하매

26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너희가 기적들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요, 빵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다.

27 썩어 없어지는 양식을 위해 수고하지 말고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도록 항상 있는 그 양식을 위해 수고하라. 그것은 사람의 아들이 너희에게 주리니 이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봉인하셨기 때문이다, 하시니라.

28 그때에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일들을 하리이까? 하매

29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너희가 믿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30 그러므로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그러면 선생님은 무슨 표적을 보이사 우리가 보고 선생님을 믿게 하시겠나이까? 선생님은 무슨 일을 행하시나이까?

31 기록된 바, 그가 그들에게 하늘로부터 빵을 주어 먹게 하였도다,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사막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하매

32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그 빵을 주지 아니하였고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빵을 주시느니라.

33 이는 하나님의 빵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자이기 때문이다, 하시니라.

34 그때에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주여, 이 빵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하매

35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생명의 빵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36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도 나를 보았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37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모든 자는 내게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38 나는 내 뜻을 행하기 위해 하늘로부터 내려오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기 위해 내려왔느니라.

39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곧 그분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그것을 다시 일으키는 것이니라.

40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존하는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배척당하심

41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이라, 하였으므로 그때에 유대인들이 그분에 대해 수군거리며

42 이르되,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우리가 아는데 어찌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하느냐? 하니

43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끼리 수군거리지 말라.

44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며 내게 오는 그를 마지막 날에 내가 일으키리라.

45 대언자들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으리라, 하고 기록되었으니 그러므로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은 다 내게 오느니라.

46 이 말은 어떤 사람이 아버지를 보았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47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느니라.

48 내가 곧 그 생명의 빵이니라.

49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으니

50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빵이므로 사람이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51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 있는 빵이니 누구라도 이 빵을 먹으면 그는 영원히 살리라. 내가 줄 빵은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줄 내 살이라, 하시니라.

52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자기들끼리 다투며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할 수 있느냐? 하매

53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느니라.

54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55 내 살은 참으로 양식이요 내 피는 참으로 음료이니

56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며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57 살아 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같이 나를 먹는 자도 그렇게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58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빵인데 너희 조상들이 만나를 먹고도 죽은 것과 달리 이 빵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하시니라.

59 이것들은 그분께서 가버나움에서 가르치실 때에 회당에서 친히 하신 말씀들이더라.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남

60 그러므로 그분의 제자들 중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듣고 이르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그것을 들을 수 있느냐? 하매

61 자기 제자들이 그것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것을 예수님께서 스스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이 너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느냐?

62 그러면 너희가 사람의 아들이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려느냐?

63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 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들, 그것들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64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몇 사람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님께서 믿지 않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배반하여 넘길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셨기 때문이다.

65 또 그분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도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66 ¶ 그때부터 그분의 제자들 중 많은 사람이 돌아가고 다시는 그분과 함께 다니지 아니하므로

67 그때에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하시니

68 그때에 시몬 베드로가 그분께 대답하되, 주여, 영원한 생명의 말씀들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리이까?

69 우리는 주께서 그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확신하나이다, 하매

70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내가 너희 열두 명을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 하나는 마귀니라, 하시니라.

71 그분께서는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에 대하여 말씀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 열두 명 중 하나로 그분을 배반하여 넘겨줄 자이기 때문이더라.

## 제 7 장

예수님의 형제들도 믿지 않음

1 이 일들 뒤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인 거주지에서 다니려 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유대인들이 그분을 죽이려 하였기 때문이더라.

2 한편 유대인들의 장막절이 가까이 왔으므로

3 그분의 형제들이 그분께 이르되, 여기를 떠나서 유대로 들어가 당신이 행하는 일들을 당신의 제자들도 보게 하소서.

4 은밀히 어떤 일을 행하면서 공개적으로 알려지기를 스스로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나이다. 당신이 이것들을 행하시거든 당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5 이는 그분의 형제들도 그분을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6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오지 아니하였으나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7 세상이 너희는 미워할 수 없으나 나는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에 대해 증언하되 세상의 행위들이 악하다고 증언하기 때문이라.

8 너희는 이 명절을 지키러 올라가

라. 나는 내 때가 아직 충만히 차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명절을 지키러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하시니라.

9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 말씀들을 하시고 여전히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하늘에서 온 지혜자

10 ¶ 그러나 그분께서도 자기 형제들이 올라간 뒤에 그 명절을 지키러 그때에 올라가시되 공개적으로 하지 아니하시고 은밀히 하듯 하시니라.

11 그때에 유대인들이 그 명절에 그분을 찾으며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였고

12 또 그분에 대해 사람들 가운데서 수군거림이 많았으니 이는 어떤 이들은 이르기를, 그는 좋은 사람이라, 하고 다른 이들은 이르기를, 아니라, 그는 사람들을 속인다, 하였기 때문이라.

13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므로 아무도 그분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말하지 아니하더라.

14 ¶ 한편 그 명절의 중간쯤에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올라가 가르치시니

15 유대인들이 놀라서 이르되, 이 사람은 결코 배우지 아니하였는데 어떻게 글을 아느냐? 하매

16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리는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분의 것이니라.

17 어떤 사람이 그분의 뜻을 행하려 하면 그 교리가 하나님에게서 왔는지 혹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알리라.

18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을 구하나 자기를 보내신 분의 영광을 구하는 자, 바로 그는 참되며 그의 안에는 불의가 없느니라.

19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너희 중 아무도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하시니

20 사람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마귀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느냐? 하매

21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였는데 너희가 다 놀라는도다.

22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 규례를 주었고 (그러나 그것은 모세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조상들에게서 났니라.) 그래서 너희가 안식일에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23 모세의 율법을 깨뜨리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 할례를 받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온몸을 온전하게 하였다고 너희가 내게 화를 내느냐?

24 겉모양대로 판단하지 말고 의로운 판단으로 판단하라, 하시니라.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가?

25 그때에 예루살렘 사람들 중의 몇 사람이 이르되, 이 사람은 그들이 죽이려 하는 그자가 아니냐?

26 그런데, 보라, 그가 담대하게 말하여도 그들이 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는도다. 참으로 치리자들은 이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 줄로 알고 있는가?

27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그에 대해 알지만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그분께서 어디서 오시는지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더라.

28 그때에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만 나는 스스로 오지 아니하였노라. 나를 보내신 분은 참되신데 너희는 그분을 알지 못하나

29 나는 그분을 아노니 이는 내가 그분에게서 나왔고 그분께서 나를 보내셨기 때문이라, 하시매

30 그때에 그들이 그분을 잡으려 하였으나 아무도 그분께 손을 대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분의 때가 아직 오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31 사람들 중의 많은 이들이 그분을 믿고 이르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이 사람이 행한 이것들보다 더 많은 기적을 행하시랴? 하니라.

32 ¶ 사람들이 그분에 관해 그런 것들로 수군거리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들었으므로 바리새인들과 수제사장들이 그분을 잡으려고 직무 수행자들을 보내매

33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가 나를 보내신 분께로 가리라.

34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내가 있는 곳, 거기에 올 수 없느니라, 하시니

35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들끼리 이르되, 그가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오? 그가 이방인들 가운데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 가서 이방인들을 가르치려는가?

36 그가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내가 있는 곳, 거기에 올 수 없느니라, 하였는데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성령님을 약속하심

37 마지막 날 곧 명절의 그 큰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38 나를 믿는 자는 성경기록이 말한 것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

39 (그러나 이것은 그분께서 자기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이더라.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아직 성령님이 주어지지 아니하였더라.)

40 ¶ 그러므로 사람들 중의 많은 이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이분은 진실로 그 대언자시다, 하니

41 다른 이들은 이르기를, 이분은 그리스도시다, 하되 어떤 이들은 이르기를, 그리스도께서 갈릴리에서 나오시겠느냐?

42 성경기록이 이르기를,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씨에서 나오시며 다윗이 있던 베들레헴 고을에서 나오시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여

43 그분으로 인해 이렇게 사람들 가운데 분열이 생기고

44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은 그분을 붙잡으려 하였으나 아무도 그분께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권세 가진 자들이 예수님을 배척함

45 ¶ 그때에 직무 수행자들이 수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오니 그들이 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데려오지 아니하였느냐? 하매

46 직무 수행자들이 대답하되, 결코 아무도 이 사람처럼 말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

47 그때에 바리새인들이 직무 수행자들에게 응답하되, 너희도 속았느냐?

48 치리자들이나 바리새인들 중에 누가 그를 믿었느냐?

49 그러나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사람들은 저주받았느니라, 하매

50 (그들 가운데 한 사람 곧 밤에 예수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51 우리의 율법은 어떤 사람의 말을 듣고 그가 행하는 것을 알아보기도 전에 그를 판단하느냐? 하니

52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조사하고 살펴보라. 갈릴리에서는 대언자가 일어나지 아니하느니라, 하였더라.

53 모든 사람이 자기 집으로 가니라.

## 제 8 장

예수님께서

음행한 여인을 용서하심

1 예수님께서 올리브 산으로 가셨다가

2 아침 일찍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

시니 온 백성이 그분께 오므로 그분께서 앉으셔서 그들을 가르치시더라.

3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다가 붙잡힌 여자를 그분께 데리고 와서 그녀를 한가운데 세우고

4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나이다.

5 한편 모세는 율법에서 이러한 자를 돌로 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는데 선생님은 무어라고 말씀하시겠나이까? 하니라.

6 그들이 그분을 시험하며 이렇게 말한 것은 그분을 고소할 구실을 얻으려 함이더라.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의 말을 듣지 못하신 듯 몸을 구부리시고 손가락으로 땅바닥에 쓰시니

7 이에 그들이 계속해서 그분께 물으므로 그분께서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그녀에게 돌을 던지라, 하시고는

8 다시 몸을 구부리시고 땅바닥에 쓰시니라.

9 그들이 그것을 듣고 양심에 가책을 받아 나이가 가장 많은 자들부터 시작하여 마지막 사람까지 하나씩 하나씩 빠져나가매 예수님만 홀로 남았고 그 여자는 한가운데 서 있더라.

10 예수님께서 일어나사 그 여자 외에는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그녀에게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는 그자들이 어디 있느냐? 아무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11 그녀가 이르되, 주여, 아무도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매 예수님께서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시니라.

나는 세상의 빛이다

12 ¶ 그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 속에서 걷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시므로

13 바리새인들이 그분께 이르되,

네가 너 자신에 대하여 증언하니 네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다. 하매

14 예수님께서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 자신에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내 증언은 참되니 이는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내가 알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말할 수 없느니라.

15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16 그러나 만일 내가 판단해도 내 판단은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지 아니하고 나와 나를 보내신 아버지가 함께 있기 때문이라.

17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은 참되다고 기록되어 있느니라.

18 내가 나 자신에 대하여 증언하는 자이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도 나에 대하여 증언하시느니라. 하시니

19 그때에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하매 예수님께서서 대답하시되, 너희가 나도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하시니라.

20 예수님께서서 성전 안에서 가르치실 때에 성전 보고에서 이 말씀들을 하셨으나 아무도 그분께 손을 대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분의 때가 아직 오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예수님께서서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심

21 그때에 예수님께서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길로 가나니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올 수 없느니라. 하시므로

22 그때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이르기를,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올 수 없느니라, 하니 그가 자살하려는가? 하매

23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왔고 나는 위에서 왔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24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니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것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시니라.

25 그때에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니 예수님께서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나는 내가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한 바로 그니라.

26 내게는 너희에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분께서 참되시므로 나는 내가 그분에게서 들은 그것들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니라.

27 그들은 그분께서 자기들에게 아버지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28 이에 예수님께서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이들을 들어 올린 뒤에야 내가 그인 것을 알며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다만 내 아버지께서 내게 가르쳐 주신 대로 내가 이것들을 말하는 것도 알리라.

29 나를 보내신 분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내가 그분을 기쁘게 하는 그것들을 항상 행하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30 그분께서 이 말씀들을 하시매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믿더라.

진리가 자유롭게 하리라

31 그때에 예수님께서서 자기를 믿은 그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32 또 너희가 진리를 알리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시니

33 ¶ 다른 자들이 그분께 응답하되, 우리는 아브라함의 씨로서 결코 누구에게도 속박된 적이 없는데 어찌 네가 이르기를, 너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하매

34 예수님께서서 그들에게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

르노니 누구든지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니라.

35 좋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지만 아들은 항상 거하나니

36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롭게 되리라.

아브라함의 씨와 마귀의 씨

37 나는 너희가 아브라함의 씨임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38 나는 내가 내 아버지와 함께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가 너희 아버지와 함께 본 것을 행하느니라. 하시니

39 그들이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니라. 하므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면 아브라함의 행위를 하였을 것이나

40 하나님에게서 친히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지금 너희가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41 너희는 너희 아버가 행하는 일들을 하는도다. 하시매 그때에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우리는 음행을 통해 태어나지 아니하였고 우리에게는 한 아버지가 계시니 곧 하나님이니라, 하므로

42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시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왔기 때문이라. 나는 스스로 오지 아니하였고 그분께서 나를 보내셨느니라.

43 너희가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너희가 내 말을 들을 수 없기 때문이라.

44 너희는 너희 아버지 마귀에게서 났으므로 너희 아버지의 욕망들을 행하려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고 자기 안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였으며 거짓말을 할 때에 자기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라.

45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46 너희 중에 누가 내게 죄가 있다고 확증하겠느냐? 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47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그것들을 듣지 아니함은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다

48 그때에 유대인들이 응답하며 그분께 이르되, 네가 사마리아 사람이요 마귀 들린 자라고 우리가 옳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49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마귀 들리지 아니하였노라. 오히려 내가 내 아버지를 공경하는데 너희가 나를 모욕하는도다.

50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영광을 구하고 심판하는 분이 계시느니라.

51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52 그때에 유대인들이 그분께 이르되, 네가 마귀 들린 것을 이제 우리가 아노라. 아브라함과 대언자들도 죽었는데 너는 말하기를,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53 네가 이미 죽은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보다 더 크냐? 또 대언자들도 죽었는데 너는 너 자신을 누구로 만드느냐? 하매

54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존귀하게 하면 내 존귀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를 존귀하게 하시는 분은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그분이니라.

55 그럼에도 너희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는 그분을 아노니 만일



내가 이르기를, 내가 그분을 알지 못한다. 하면 내가 너희와 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그러나 나는 그분을 알며 그분의 말씀을 지키노라.

56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은 나의 날 보기를 기뻐하다가 그날을 보고 즐거워하였느니라, 하시니

57 그때에 유대인들이 그분께 이르되, 네가 아직 오십 세도 안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하매

58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라.

59 그때에 그들이 돌을 들어 그분께 던지려 하였으나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을 숨기시고 성전에서 나가시되 그들의 한가운데를 통과하사 그렇게 지나가시니라.

## 제 9 장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고치심

1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에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을 보시매

2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여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누가 죄를 지었기에 이 사람이 눈먼 자로 태어났나이까? 그니이까, 그의 부모이니이까? 하니

3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나 죄를 짓지 아니하였으며 다만 이것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4 낮일 때에 내가 반드시 나를 보내신 분의 일들을 해야 하리니 밤이 오면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5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 하시니라.

6 이렇게 말씀하신 뒤 그분께서 땅바닥에 침을 뱉고 침으로 진흙을 이겨 그 눈먼 사람의 눈에 진흙을 바르시며

7 그에게 이르시되, 가서 실로암 못에서 씻으라, 하셨는데 (실로암은 번

역하면 보내어졌다는 말이라.) 그러므로 그가 자기 길로 가서 씻은 뒤 보면서 왔더라.

8 ¶ 그런 이유로 이웃 사람들과 또 전에 그가 눈먼 것을 본 자들이 이르되, 이 사람은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하니

9 어떤 이들은 이르기를, 이 사람이 그 사람이라, 하고 다른 이들은 이르기를, 그는 그 사람과 비슷하다, 하나 그는 이르기를, 내가 그라, 하니라.

10 그러므로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 눈이 어떻게 열렸느냐? 하매

11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예수라 하는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에게 이르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내가 가서 씻고 시력을 받았노라, 하니

12 그때에 그들이 그에게 이르기를,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나는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바리새인들이 눈먼 사람을 출회함

13 ¶ 그들이 전에 눈멀었던 그 사람을 바리새인들에게 데려갔는데

14 예수님께서 진흙을 이겨 그의 눈을 열어 주신 날은 안식일이더라.

15 그때에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시력을 받았는지 그에게 다시 물으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었고 보나이다, 하니

16 그런 이유로 바리새인들 중의 어떤 이들은 이르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에게서 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고 다른 이들은 이르되, 죄인인 사람이 어떻게 그런 기적들을 행할 수 있느냐? 하여 그들 가운데 분열이 생기니라.

17 그들이 그 눈멀었던 사람에게 다시 이르되, 그가 네 눈을 열어 주었으니 너는 그에 대해 무어라고 말하느냐? 하매 그 사람이 이르되, 그는 대언자이니이다, 하니라.

18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 사람에

관한 일 곧 그가 눈멀었다가 시력을 받은 것을 믿지 아니하다가 마침내 시력을 받은 자의 부모를 불러

19 그들에게 물으며 이르되, 이 사람이 너희가 눈먼 자로 태어났다고 말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그가 어떻게 보느냐? 하니

20 그의 부모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그가 눈먼 자로 태어난 것을 우리가 아나이다.

21 그러나 그가 어떤 방법을 통해 지금 보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며 또는 누가 그의 눈을 열어 주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나이 들었으니 그에게 물으소서, 그가 자기를 위해 말하리이다, 하니라.

22 그의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어떤 사람이 시인하면 그를 회당에서 내쫓기로 이미 유대인들이 결의하였으므로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더라.

23 그러므로 그의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나이 들었으니 그에게 물으소서, 하였더라.

24 그때에 그들이 눈멀었던 그 사람을 다시 불러 그에게 이르되,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임을 아노라, 하니

25 그 사람이 응답하여 이르되, 그가 죄인인지 아닌지 나는 알지 못하며 내가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눈멀었으나 지금은 본다는 것이니이다, 하매

26 그때에 그들이 다시 그 사람에게 이르되, 그가 네게 무엇을 하였느냐? 그가 어떻게 네 눈을 열어 주었느냐? 하니

27 그 사람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내가 이미 당신들에게 고하였어도 당신들이 듣지 아니하더니 어찌하여 다시 들으려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하매

28 그때에 그들이 그 사람에게 욕하며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니라.

29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음을 우리가 알지만 이자에 관하여는 그가 어디서 왔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30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나 그가 내 눈을 열어 주었으니 참으로 여기에 이상한 일이 있도다.

31 하나님께서 죄인들의 말은 듣지 아니하시나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경배하며 그분의 뜻을 행하면 그분께서 그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이제 우리가 아나이다.

32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의 눈을 어떤 사람이 열어 주었다는 것은 아무도 듣지 못하였나이다.

33 이 사람이 하나님에게서 오지 아니하였다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리이다, 하매

34 그들이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네가 전적으로 죄들 가운데서 태어나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그를 내쫓으니라.

보는 자들과 보지 못하는 자들

35 그들이 그를 내쫓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그를 만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하시니

36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분이 누구시니이까? 내가 그분을 믿으려 하나이다, 하매

37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으며 또 너와 말하고 있는 자가 그니라, 하시니

38 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그분께 경배하니라.

39 ¶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기 위해 이 세상에 왔으니 이것은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눈멀게 하려 함이라, 하시매

40 그분과 함께 있던 바리새인들 중의 어떤 자들이 이 말씀들을 듣고 그분께 이르되, 우리도 눈멀었느냐?

하니

41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눈멀었다면 너희에게 죄가 없었을 것이나 지금 너희가, 우리는 본다, 하고 말하므로 너희 죄가 남아 있느니라, 하시니라.

## 제 10 장

나는 양들의 목자이다

1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해 양 우리에게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길로 넘어가는 자, 바로 그자는 도둑이며 강도이나

2 문을 통해 들어가는 자는 양들의 목자니라.

3 문지기는 그에게 문을 열어 주고 양들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들을 이름으로 불러 그것들을 밖으로 인도하느니라.

4 그가 자기 양들을 내놓은 뒤에 그것들 앞에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알므로 그를 따라오되

5 낯선 자들의 음성은 알지 못하므로 낯선 자를 따르려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에게서 도망하리라.

6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분께서 자기들에게 말씀하신 것들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였으므로

7 그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들의 문이니라.

8 나보다 먼저 온 모든 자들은 도둑이요 강도이나 양들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9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를 통해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고 나오며 풀을 얻으리라.

10 도둑이 오는 것은 다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함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11 나는 선한 목자니라. 선한 목자

는 양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주지만 12 목자가 아닌 삯꾼 곧 양들이 자기 것이 아닌 자는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도망하나니 이로써 이리가 그것들을 붙잡아 가고 양들을 홀어 버리느니라.

13 삯꾼이 도망하는 것은 그가 삯꾼이므로 양들을 돌보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14 나는 선한 목자라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도 나를 아느니라.

15 아버지께서 나를 알듯이 그렇게 나도 아버지를 아노니 나는 양들을 위해 내 생명을 내놓느니라.

16 또 이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다른 양들이 내게 있으므로 그들도 내가 반드시 데려오리니 그들이 내 음성을 듣겠고 이로써 한 우리와 한 목자가 있으리라.

17 그런 까닭으로 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나니 이는 내가 내 생명을 다시 취하려고 그것을 내놓기 때문이다.

18 아무도 그것을 내게서 빼앗지 아니하며 내가 스스로 그것을 내놓느니라. 내게는 그것을 내놓을 권능도 있고 그것을 다시 취할 권능도 있노라. 나는 이 명령을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느니라, 하시니라.

19 ¶ 그러므로 이 말씀들로 인해 유대인들 가운데 다시 분열이 생기니

20 그들 중의 많은 자들은 이르되, 그는 마귀 들려 미쳤는데 어찌하여 너희가 그의 말을 듣느냐? 하고

21 다른 사람들은 이르되, 이것들은 마귀 들린 자의 말들이 아니니라. 마귀가 눈먼 자의 눈을 열어 줄 수 있느냐? 하더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다시 돌로 치려 함

22 ¶ 예루살렘에서 성전 봉헌절 행사가 있었는데 때는 겨울이더라.

23 예수님께서 성전 안의 솔로몬의 주랑에서 거닐고 계셨는데

24 그때에 유대인들이 그분 주위

로 와서 그분께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 우리를 의심하게 하시나이까?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소서, 하매

25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믿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에 대하여 증언하나

26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같이 너희가 내 양들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27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28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29 그들을 내게 주신 내 아버지는 모든 것보다 크시매 아무도 내 아버지 손에서 그들을 빼앗을 수 없느니라.

30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시니라.

31 그대에 유대인들이 돌을 집어 다시 그분을 치려 하므로

32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내가 내 아버지로부터 나온 많은 선한 일들을 너희에게 보였는데 그 일들 중 어떤 일 때문에 너희가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하시매

33 유대인들이 그분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 하는 것은 선한 일 때문이 아니요 신성모독 때문이니 곧 사람인 네가 너 자신을 하나님으로 만들기 때문이라, 하매

34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라, 하였노라, 하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35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그분께서 신들이라 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은 깨뜨릴 수 없거든

36 내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고 말하였다 해서 아버지께서 기록

히 구별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에 대해 너희가 말하기를, 네가 신성모독 한다, 하느냐?

37 내가 만일 내 아버지의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라.

38 그러나 내가 행하거든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들은 믿으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고 믿으리라, 하시니라.

요르단 건너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음

39 이런 까닭으로 그들이 다시 그분을 잡으려 하였으나 그분께서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 피하시고

40 다시 요르단 건너편 곧 요한이 처음에 침례를 주던 곳으로 가서서 거기 거하시니

41 많은 사람들이 그분께 왔다가 이르되, 요한은 아무 기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에 대해 말한 모든 것은 진실이었도다, 하더라.

42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믿으니라.

## 제 11 장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러 가심

1 한편 나사로라 하는 어떤 사람이 병들었는데 그는 마리아와 그녀의 언니 마르다의 고을 베다니 출신이더라.

2 (그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분의 발을 닦은 자였는데 그녀의 오라비 나사로가 병들었더라.)

3 그러므로 그의 누이들이 그분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소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매

4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니 하나님의 아들이 그것에 의해 영광을 받으리라, 하시더라.

5 그런데 예수님께서서는 마르다와 그녀의 여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라.

6 그러므로 그분께서 그가 병들었다는 것을 들으신 뒤에 자신이 계시던 같은 장소에서 이들을 더 머무시고

7 그 뒤에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다시 유대로 들어가자, 하시니

8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며, 최근에 유대인들이 선생님을 돌로 치려 하였는데 거기서 다시 가시나이까? 하매

9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낮에 열두 시간이 있지 아니하나? 누구든지 낮에 걸으면 그는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걸려 넘어지지 아니하나

10 밤에 걸으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으므로 걸려 넘어지느니라, 하시니라.

11 이것들을 말씀하시고 그 뒤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어 있도다. 그러나 내가 그를 잠에서 깨우려 가노라, 하시니

12 그때에 그분의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그가 잠들어 있다면 몸이 좋아지리이다, 하니라.

13 비록 예수님께서서는 그의 죽음에 대해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분께서 잠들어 쉬는 것에 대해 말씀하신 줄로 생각하므로

14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분명하게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15 내가 거기에 있지 않았던 것을 너희를 위해 기뻐하노니 이것은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에게로 가자, 하시매

16 그때에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자기 동료 제자들에게 이르되, 우리도 그분과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17 그때에 예수님께서 와서 보시니 그가 무덤에 누운 지 이미 나흘이나

되었더라.

18 한편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십오 스타디온쯤 떨어진 가까운 곳이었로

19 유대인들 중의 많은 자들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와서 그들의 오라비에 관하여 그들을 위로하더라.

20 그때에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바로 가서 그분을 맞이하였으나 마리아는 가만히 집에 앉아 있더라.

21 그때에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르되, 주여,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으리이다.

22 그러나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 하나님께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께 주실 줄을 내가 아나이다, 하니

23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일어나리라, 하시므로

24 마르다가 그분께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할 때에 그가 다시 일어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하매

25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26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하시니

27 그녀가 그분께 이르되, 그러하오이다, 주여, 주께서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하니라.

28 이렇게 말하고 그녀가 자기 길로 가서 은밀히 자기 동생 마리아를 불러 이르되, 선생님께서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29 그녀가 그 말을 듣는 즉시 급히 일어나 그분께 가더라.

30 한편 예수님께서서는 아직 고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그분을 맞이했던 곳에 계셨는데

31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으면서 그녀를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때에

그녀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이르기를, 그녀가 무덤에서 슬피 울기 위해 무덤에 간다, 하며 그녀를 따라가니라.

32 그때에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제신 곳에 와서 그분을 보고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 그분께 이르되, 주여,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으리이다, 하니

33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녀가 우는 것과 또 그녀와 함께 온 유대인들도 우는 것을 보시고 영으로 신음하시며 괴로워하시고

34 이르시되, 너희가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하시매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주여, 와서 보시옵소서, 하니

35 예수님께서 우시더라.

36 그때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보라, 그분께서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고

37 그들 중의 어떤 이들은 이르되, 눈먼 자의 눈을 열어 준 이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을 죽지 않게 할 수는 없었느냐? 하더라.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심

38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다시 속으로 신음하시며 무덤으로 가시는데 그것은 동굴이며 그 위에 돌이 놓였더라.

39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그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으므로 지금은 그에게서 냄새가 나나이다, 하매

40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말하기를,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라.

41 그때에 그들이 죽은 자를 둔 곳에서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님께서 눈을 드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다.

42 아버지께서 항상 내 말을 들으

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곁에서 있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그것을 말하였사오니 이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이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시니라.

43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큰 소리로 외쳐,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니

44 죽은 자가 손발이 수의로 묶인 채 나오는데 그의 얼굴이 수건으로 묶였으므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풀어 주어 그가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함 (마26:1-5; 막14:1-2; 눅22:1-2)

45 마리아에게 왔다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본 유대인들 중의 많은 자들이 그때에 그분을 믿었으나

46 그들 중의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길로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그들에게 고하니라.

47 ¶ 그때에 수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기적들을 행하고 있으니 우리가 어찌해야 하겠느냐?

48 만일 우리가 그를 이대로 내버려두면 모든 사람들이 그를 믿을 것이요 또 로마 사람들이 와서 우리의 터전과 민족을 다 빼앗아 가리라, 하매

49 그들 중의 한 사람으로서 바로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라 하는 자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아무것도 알지 못하며

50 또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 죽어서 온 민족이 멸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것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더라.

51 그는 스스로 이 말을 하지 아니하고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님께서 그 민족을 위해 죽으실 것을 대언하되

52 그분께서 그 민족만을 위해 죽지 아니하시고 또한 널리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로 함께 모으시기



위해 죽으실 것을 대언하였더라.

53 이에 그들이 그 날부터 그분을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니

54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다시는 유대인들 가운데 공개적으로 다니지 아니하시고 저기를 떠나 광야에 가까운 시골로 가서서 에브라임이라 하는 도사로 들어가 자기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머무시니라.

55 ¶ 유대인들의 유월절이 가까이 오매 많은 사람이 자기를 정결하게 하려고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는데

56 그때에 그들이 예수님을 찾으려 성전 안에 서서 자기들끼리 말하되,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그가 명절을 지키러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라.

57 한편 수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양측 다 그분을 붙잡기 위해 누구든지 그분께서 계신 곳을 알거든 그곳을 알리라고 명령을 내렸더라.

## 제 12 장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기름 부음을 받으심(마26:6-13; 막14:3-9)

1 그 뒤에 예수님께서 유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로 가셨는데 거기에는 전에 죽었으나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나사로가 있더라.

2 거기서 그들이 그분을 위해 저녁 식사를 베풀었고 마르다는 섬겼으나 나사로는 그분과 함께 상에 앉아 있는 자들 중 하나로 있더라.

3 그때에 마리아가 매우 값진 나드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분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4 그때에 그분의 제자들 중 하나로 그분을 배반하여 넘길 시몬의 아들이 가롯 유다가 말하되,

5 어찌하여 이 향유를 삼백 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6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자들을 염려해서가 아니라 그가 도둑이며 가방을 맡아 그 안에 든 것을 가져갔기 때문이더라.

7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그녀를 가만두라. 나를 장사할 날을 대비하여 그녀가 이것을 간직하였느니라.

8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는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9 그러므로 유대인들 중의 많은 사람들이 그분께서 거기 계신다는 것을 알고 오니 이것은 예수님 때문만이 아니요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더라.

10 ¶ 그러나 수제사장들이 나사로도 죽이려고 혐의하였으니

11 이는 그로 인해 유대인들 중의 많은 자들이 가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더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심

(마21:1-11; 막11:1-10; 눅19:28-40)

12 ¶ 그다음 날, 명절을 지키러 온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말을 듣고는

13 종려나무 가지들을 가지고 그분을 맞으러 나가서 외치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스라엘의 왕을 찬송할지어다, 하더라.

14 예수님께서 한 어린 나귀를 보시고 그 위에 타시니 이것은 기록된 바,

15 시온의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네 왕이 오되 나귀의 어린 수나귀 위에 앉아서 오느니라, 함과 같더라.

16 그분의 제자들은 처음에 이것들을 깨닫지 못하였으나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뒤에 이것들이 그분에 대하여 기록되었으매 그래서 그들이 그분께 이것들을 행하였음을 생각해 내었더라.

17 그러므로 그분께서 나사로를 그의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실 때에 그분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증언하니라.

18 이런 까닭으로 사람들이 또한 그분을 맞이하였으니 이는 그분께서 이 기적을 행하셨음을 그들이 들었기 때문이더라.

19 그러므로 바리새인들이 자기들 끼리 이르되, 너희가 아무 성과도 얻지 못하고 있음을 깨닫느냐? 보라, 세상이 그를 따라서 가는도다, 하니라.

한 알의 밀이 죽어야 열매를 맺음

20 ¶ 그 명절에 경배하러 올라온 자들 가운데 어떤 그리스 사람들이 있었는데

21 바로 그 사람들이 갈릴리 벳새다 출신의 빌립에게 가서 그에게 요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님을 뵈기 원하나이다, 하매

22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다시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님께 고하니라.

23 ¶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이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24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홀로 남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25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에 이르도록 그것을 간직하리라.

26 어떤 사람이 나를 섬기면 그는 나를 따를지니 내가 있는 곳, 거기에 내 종도 있을 것이요, 어떤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존귀하게 여기시리라.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심

27 지금 내 혼이 괴로우니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아버지여, 이때로부터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런 까닭으로 이때까지 왔나이다.

28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그때에

하늘로부터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내가 이미 그것을 영광스럽게 하였고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라.

29 그러므로 곁에 서서 그것을 들은 사람들은 천둥이 쳤다고도 하며 다른 사람들은 이르기를,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하니

30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이 음성은 나 때문에 나지 아니하고 너희를 위해 났느니라.

31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있으니 이제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나리라.

32 내가 땅에서부터 들리면 모든 사람들을 내게로 이끌리라, 하시니라.

33 그분께서 이것을 말씀하사 자신이 어떤 죽음으로 죽을지 겉으로 드러내 보여 주시니

34 사람들이 그분께 응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거하신다고 들었는데 어찌 너는 이르기를, 사람의 아들이 반드시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사람의 아들은 누구냐? 하매

35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은 빛이 너희와 함께 있으니 너희에게 빛이 있을 동안에 걸어서 어둠이 너희에게 닥치지 않게 하라. 어둠 속에서 걷는 자는 자기가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36 너희에게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빛의 자녀들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것들을 말씀하시고 떠나서 그들에게 자신을 숨기시니라.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37 ¶ 그러나 그분께서 이렇게 많은 기적들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분을 믿지 아니하였으니

38 이것은 대언자 이사야의 말씀이 성취되게 하려 함이더라. 그가 말하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39 이런 이유로 그들이 믿을 수 없었으니 이는 이사가야가 다시 말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이르되,

40 그분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강박하게 하셨으니 이것은 그들이 자기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달아 회심하여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더라.

41 이것들은 이사가야가 그분의 영광을 보고 그분에 대해 말하였을 때에 이른 말씀이더라.

빛 가운데서 걸으라

42 ¶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두머리 치리자들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믿되 바리새인들로 인해 자기들이 회당에서 쫓겨날까 염려하여 그분을 시인하지 아니하였으니

43 이는 그들이 사람들의 칭찬을 하나님의 칭찬보다 더 사랑하였기 때문이더라.

44 ¶ 예수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으며

45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느니라.

46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이것은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어둠 속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47 사람이 내 말들을 듣고 믿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니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오지 아니하고 세상을 구원하러 왔노라.

48 나를 거절하고 내 말들을 받아 들이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그를 심판하는 자가 있으니 곧 내가 한 말, 바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49 나는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였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이를 것과 말할 것을 친히 내게 명령으로 주셨느니라.

50 나는 그분의 명령이 영존하는

생명임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무엇을 말하든지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나도 말하노라, 하시니라.

## 제 13 장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

1 한편 유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자기 때가 와서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야 할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시니라.

2 저녁 식사가 끝날 무렵에 이제 마귀가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그분을 배반하여 넘겨주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3 예수님께서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넘겨주신 것과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갈 것을 아시고

4 저녁 식사 자리에서 일어나 겹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몸에 두르시며

5 그 뒤에 대야에 물을 부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몸에 두른 수건으로 닦기 시작하시니라.

6 그때에 그분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다가가시니 베드로가 그분께 말하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하매

7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하시니라

8 베드로가 그분께 이르되, 절대로 주께서 내 발을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겨 주지 아니하면 나와 함께할 뭇이 네게 없느니라, 하시므로

9 시몬 베드로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하매

10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미 씻긴 자는 모든 곳이 깨끗하므로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라.

11 이는 그분께서 자기를 배반하여 넘길 자가 누구인지 아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다 깨끗하지는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12 이렇게 그분께서 그들의 발을 씻겨 주시고 옷을 입으신 뒤에 다시 자리를 잡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13 너희가 나를 선생과 주라 부르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니라.

14 그런즉 너희 주와 선생인 내가 너희 발을 씻겨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 주어야만 하느니라.

15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내가 너희에게 본보기를 주었느니라.

16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자기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내어진 자가 그를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라.

17 너희가 이것들을 알고 그것들을 행하면 행복하니라.

예수님께서 배반자를 지적하심  
(마26:20-25; 막14:17-21; 눅22:21-23)

18 ¶ 내가 너희 모두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노니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아노라. 그러나 이것은, 나와 함께 빵을 먹는 자가 나를 대적하여 자기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하는 성경기록이 성취되게 하려 함이니라.

19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지금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그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것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니라.

20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누구를 보내든지 그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느니라. 하시니라.

21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영으로 괴로워하시며 증언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의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하여 넘겨주리라. 하시며

22 그때에 제자들이 서로 바라보며 그분께서 누구에 대하여 말씀하셨는지 의아해하더라.

23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중 하나 곧 그분께서 사랑하신 자가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 있으므로

24 시몬 베드로가 그에게 고갯짓을 하여 그분께서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그가 여쭙게 하니

25 이에 그가 예수님의 가슴에 누워 그분께 이르되, 주여, 그게 누구니 이까? 하매

26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그는 곧 내가 빵 한 조각을 적셔서 주는 자니라. 하시고 빵 한 조각을 적셔서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에게 주시니라.

27 빵 조각을 받은 뒤에 사탄이 그에게 들어가매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것을 속히 하라. 하시니라.

28 그런데 상에 앉아 있던 자들 가운데 아무도 그분께서 무슨 뜻으로 그에게 이것을 말씀하셨는지 알지 못하였으니

29 이는 그들 중의 어떤 자들은 유다가 가방을 가졌으므로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기를, 명절을 대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그것들을 사라, 하셨거나 또는 그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어야 한다고 하신 줄로 생각하였기 때문이더라.

30 그때에 그가 빵 조각을 받은 뒤 즉시 나갔는데 때는 밤이더라.

새 명령

31 ¶ 그러므로 그가 나간 뒤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이제 사람의 아들이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께서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으셨도다.

32 만일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영광을 받으셨다면 하나님께서도 자신

안에서 그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요, 즉시 그를 영광스럽게 하시리라.

33 어린아이들아, 아직 잠시 동안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내가 유대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올 수 없느니라. 한 것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그렇게 말하노라.

34 내가 새 명령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35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것에 의해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임을 알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주께서 예고하심

36 ¶ 시몬 베드로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나를 따라올 수 없으나 나중에는 나를 따라오리라, 하시므로

37 베드로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내가 지금은 주를 따라갈 수 없나이까? 내가 주를 위해 내 생명을 내놓겠나이다, 하매

38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해 네 생명을 내놓겠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수탉이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 제 14 장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1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한 나를 믿으라.

2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해 주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3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4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알고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시니

5 도마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어찌 그 길을 알 수 있나이까? 하매

6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7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분을 알고 또 보았느니라, 하시니라.

8 빌립이 그분께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 주소서, 그러면 우리에게 족하겠나이다, 하니

9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도 내가 아직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는데 어찌 내가 말하기를,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 주소서, 하느냐?

10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들은 내가 스스로 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내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 곧 그분께서 그 일들을 하시느니라.

11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내 말을 믿으라. 그러지 못하겠거든 바로 그 일들로 인해 나를 믿으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

12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또한 내가 하는 그 일들을 할 것이요, 이것들보다 더 큰 일들도 하리라. 이는 내가 내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13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그것을 행하리니 이것은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14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그것을 행하리라.

예수님께서

위로자 성령님을 약속하심

15 ¶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명령들을 지키라.

16 내가 아버지께 구하면 그분께서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사 그분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게 하시리니

17 곧 진리의 영이시라. 세상은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니 이는 세상이 그분을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아나니 이는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라.

18 내가 너희를 위로 없이 버려두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에게로 오리라.

19 조금 있으면 세상은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하겠지만 너희는 나를 보리니 내가 살아 있으므로 너희도 살리라.

20 그 날에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리라.

21 내 명령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시니라.

22 가룟이 아닌 유다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어찌 주께서 우리에게는 자신을 나타내려 하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하매

23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들을 지키리니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우리의 거처가 그와 함께 있게 하리라.

24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들을 지키지 아니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것이니라.

위로자 성령님과 주님의 화평

25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으면

서 이것들을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26 위로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 그분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말하였든지 너희가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리라.

27 내가 너희에게 화평을 남기노니 곧 내 화평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방식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28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 즉,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 다시 오리라, 한 것을 너희가 들었나니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다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고 말하였으므로 기뻐하였으리라. 이는 내 아버지께서 나보다 크시기 때문이니라.

29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지금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은 그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30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와 많이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 세상의 통치자가 오기 때문이라. 그는 내 안에서 아무것도 갖지 못하느니라.

31 그러나 이것은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내게 명령을 주신 대로 그렇게 나도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니라. 일어나라. 우리가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 제 15 장

나는 참 포도나무이다

1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시니

2 내 안에 있으면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모든 가지는 그분께서 제거하시고 열매를 맺는 모든 가지는 깨끗하게 하사 그것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느니라.

3 이제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일러 준 말로 깨끗하게 되었으니

4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

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5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바로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6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버려져서 시드나니 사람들이 그것들을 모아 불 속에 던져 태우느니라.

7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바를 구하라. 그러면 그것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8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는 것, 이것에 의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나니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9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너희는 내 사랑 안에 거하라.

10 내가 내 아버지의 명령들을 지켰고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같이 너희도 내 명령들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11 내가 너희에게 이 일들을 말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12 내 명령은 이것이니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니라.

13 사람이 자기 친구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내놓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은 아무에게도 없나니

14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을 너희가 행하면 너희가 내 친구니라.

15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좋은 자기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

라. 오히려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하였나니 이는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려 주었기 때문이다.

16 너희가 나를 택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게 하며 너희 열매가 남아 있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그분께서 그것을 너희에게 주시게 하려 함이라.

17 이것들을 내가 너희에게 명령함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리라

18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하였음을 너희가 아느니라.

19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을 것이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20 내가 너희에게 한 말 즉, 종이 자기 주인보다 크지 못하리라,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나를 핍박하였으면 너희도 핍박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으면 너희 말도 지키리라.

21 그러나 그들이 내 이름으로 인해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보내신 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22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을 것이나 지금은 그들의 죄를 가려 줄 것이 그들에게 없느니라.

23 나를 미워하는 자는 내 아버지도 미워하느니라.

24 다른 어떤 사람도 행하지 않은 일들을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을 것이나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둘 다를 미워하였느니라.

25 그러나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은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말씀 즉, 그들



이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였나이다. 하는 말씀이 성취되게 하려 함이니라.

26 그러나 내가 아버지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위로자 곧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영께서 오실 때에 그분께서 나에 대하여 증언하실 것이요,

27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리라.

## 제 16 장

예수님의 경고와 위로

1 내가 이 일들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2 그들이 너희를 회당들에서 내쫓을 것이요 참으로 때가 오면 너희를 죽이는 자마다 자기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리라.

3 그들이 너희에게 이 일들을 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4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 일들을 말한 것은 그때가 올 때에 내가 너희에게 그것들을 일러 주었음을 너희가 기억하게 하려 함이요, 또 처음에 내가 이 일들을 너희에게 말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니라.

성령님의 일

5 그러나 지금 내가 내 길로 나를 보내신 분께 가는데 너희 중에서 아무도 내게, 어디로 가시나이까? 하고 묻지 아니하며

6 도리어 내가 이 일들을 너희에게 말하였으므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 찼도다.

7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위로자께서 너희에게 오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내가 떠나면 내가 그분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8 그분께서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꾸짖으시리라.

9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10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내 아버지께로 가므로 너희가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요,

11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라.

12 내가 아직 너희에게 말할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그것들을 감당할 수 없느니라.

13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든지 자기가 듣는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희에게 보이시리라.

14 그분께서 나를 영광스럽게 하시리니 이는 그분께서 내게서 받아 그것을 너희에게 보이실 것이기 때문이라.

15 아버지께 있는 모든 것은 내 것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분께서 내 것을 가져다가 그것을 너희에게 보이시리라, 하였노라.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리라

16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다시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17 그때에 그분의 제자들 중 몇 사람이 자기들끼리 이르되, 그분께서 우리에게,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다시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라, 하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18 그러므로 이르되, 그분께서, 조금 있으면, 하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 그분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알 수 없노라, 하니

19 이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이 자기에게 묻기 원하는 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다시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리라. 하고 말한 것에 대해 너희가 너희끼리 묻느냐?

20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슬피 울며 애통할 것이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가 근심할 것이나 너희 근심이 기쁨으로 변하리라.

21 여자가 산고를 겪으면 자기 때가 왔으므로 근심하지만 아이를 낳는 즉시 세상에 사람이 태어난 기쁨으로 인해 다시는 그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22 그러므로 지금은 너희에게 근심이 있으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볼 것이요, 그러면 너희 마음이 기뻐하리니 아무도 너희에게서 너희 기쁨을 빼앗지 못하느니라.

23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구하지 아니하리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그분께서 그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24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받으리니 이것은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25 내가 이 일들을 비유로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때가 오면 내가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 대하여 분명히 너희에게 보이리니

26 그 날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가 너희를 위해 아버지께 기도하겠다고 너희에게 말하지 아니하노니

27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고 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옴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니라.

28 내가 아버지로부터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라.

29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이르되, 보소서, 이제는 주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도 말씀하지 아니하시니

30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과 또 아무도 주께 여쭈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이제야 우리가 확신하나이다. 이것에 의해 주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셨음을 우리가 믿나이다, 하매

31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32 보라, 너희가 흠어지되 각각 자기 길로 흠어지고 나를 혼자 버려둘 때가 오나니 참으로 이제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

33 너희에게 이 일들을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화평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 제 17 장

주님의 기도: 자신을 위하여

1 예수님께서 이 말씀들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향해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왔으니 아버지의 아들들을 영광스럽게 하사 아버지의 아들들도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도록 하옵소서.

2 아버지께서 그에게 모든 육체를 다스리는 권능을 주셨으니 이것은 그가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3 영생은 이것이니 곧 그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인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4 내가 땅에서 아버지를 영광스럽

게 하였사오니 곧 내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끝마쳤나이 다.

5 오 아버지여, 세상이 있기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광으로 이제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주님의 기도: 제자들을 위하여

6 아버지께서 세상 가운데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 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아버지께서 그들을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 다.

7 이제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이 그 무엇이든 다 아버지에게서 나왔음을 알았나이 다.

8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고 그들은 그것들을 받았으며 내가 아버지로부터 나왔음을 확실히 알았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음을 믿었나이 다.

9 내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나이다. 내가 세상을 위해 기도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니 이다.

10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인데 내가 그들 가운데서 영광을 받게 되었나이 다.

11 이제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이들은 세상에 있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오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지키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12 내가 그들과 함께 세상에 있을 때에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켰나이 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내가 지켰고 멸망의 아들 외에는 그들 중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으니 이것은 성경기록이 성취되게 하려 함이니 이다.

13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것들을 말하는 것은

그들이 내 기쁨을 자기들 안에서 성취하게 하려 함이니 이다.

14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으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니 이다.

15 나는 아버지께서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실 것을 기도하지 아니하며 그들을 악에서 지켜 주실 것을 기도하나 이다.

16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나 이다.

17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 이다.

18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같이 그렇게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19 또 내가 그들을 위해 나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오니 이것은 그들도 진리로 거룩히 구별되게 하려 함이니 이다.

주님의 기도: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20 내가 이들만을 위해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말로 인하여 나를 믿을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오니

21 이것은 그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 이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이 믿게 하옵소서.

22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 이다.

23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나니 이것은 그들이 하나로 완전해지게 하려 함이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니 이다.

24 아버지여, 원하건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도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사 아버지께서 세상의 창건 이전에 나를 사랑하셨으므로 친히 내게 주신 내 영광을 그들이 보게 하옵소서.

25 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은 아버지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는 아버지를 알았고 이들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음을 알았나이다.

26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밝히 드러내었고 또 밝히 드러내리니 이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실 때 보여 주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게 하며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시니라.

## 제 18 장

예수님께서 배반당해 붙잡히심

(마26:47-56; 막14:43-50; 눅22:47-53)

1 예수님께서 이 말씀들을 하시고 자기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너머로 나가사 자기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있는 동산으로 들어가셨는데

2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자주 가셨으므로 그분을 배반하여 넘긴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3 그때에 유다가 수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로부터 사람들과 직무 수행자들 한 부대를 넘겨받은 뒤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거기로 오므로

4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닥칠 모든 일들을 아시고 나아가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5 그들이 그분께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라, 하셨는데 그분을 배반하여 넘긴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서 있더라.

6 그때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라, 하고 말씀하시니 곧바로 그들이 뒤로 물러가 땅바닥에 쓰러지므로

7 이에 그분께서 다시 그들에게 물

으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르되, 나사렛 예수라, 하매

8 예수님께서 응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내가 그라고 말하였으므로 너희가 나를 찾거든 이들은 그들의 길로 가게 하라, 하시니

9 이것은 그분께서 하신 말씀 곧,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나이다, 하신 말씀이 성취되게 하려 함이더라.

10 그때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으므로 그것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의 오른쪽 귀를 뺐는데 그 종의 이름은 말고더라.

11 그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네 칼을 칼집에 꽂으라. 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안나스 앞으로 끌려가심  
(마26:57-58; 막14:53-54; 눅22:54)

12 그때에 그 부대와 대장과 유대인들의 직무 수행자들이 예수님을 붙잡은 뒤 결박하여

13 먼저 안나스에게 끌고 갔으니 이는 그가 바로 그 해에 대제사장이던 가야바의 장인이었기 때문이더라.

14 한편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한 자더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함  
(마26:69-70; 막14:66-68; 눅22:55-57)

15 ¶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하나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갔는데 그 제자는 대제사장을 알므로 예수님과 함께 대제사장의 관저로 들어갔으나

16 베드로는 바깥의 문 곁에 서 있더라. 그때에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을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매

17 그때에 문을 지키는 소녀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당신도 이 사람의 제자들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더라.

18 날이 추우므로 종들과 직무 수행자들이 솥불을 피우고 거기 서서 몸을 녹이니 베드로도 그들과 함께 서서 몸을 녹이더라.

예수님께서 심문을 받으심

(마26:59-66; 막14:55-64; 눅22:66-71)

19 ¶ 그때에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그분의 제자들과 그분의 교리에 대하여 물으니

20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시되, 내가 공개적으로 세상에 말하였노라. 내가 유대인들이 늘 모이는 회당과 성전 안에서 항상 가르쳤고 아무 것도 은밀하게 말하지 아니하였는데

21 네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그들에게 무슨 말을 하였는지 내 말을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보라. 그들이 내가 말한 것을 아느니라, 하시니라.

22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매 결에서 있던 직무 수행자들 중 하나가 손바닥으로 예수님을 때리며 이르되, 네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23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시되, 내가 악한 것을 말하였으면 그 악한 것에 대하여 증언하라. 그러나 잘 말하였으면 어찌하여 내가 나를 때리느냐? 하시더라.

24 그런데 안나스가 그분을 결박한 채로 이미 대제사장 가바바에게 보내었더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두 번 더 부인함

25 시몬 베드로가 서서 몸을 녹이고 있었으므로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너도 그 사람의 제자들 중 하나가 아니냐? 하매 그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시니라.

26 대제사장의 종들 중 하나는 베드로가 귀를 뺀 사람의 친족이었는데 그가 이르되,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27 그때에 베드로가 다시 부인하매 즉시 수탉이 울더라.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 서심

(마27:1-2, 11-14; 막15:1-5; 눅23:1-5)

28 ¶ 그 뒤에 그들이 예수님을 가바바에게서 취해 재판정으로 끌고 갔는데 때는 이른 아침이더라. 그들이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유월절 어린양을 먹기 위해 재판정으로 들어가지 아니하니

29 그때에 빌라도가 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을 대적하려고 무슨 고소거리를 가져오느냐? 하매

30 그들이 빌라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범죄자가 아니라면 우리가 그를 당신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였으리이다, 하니

31 그때에 빌라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그를 재판하라. 하므로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우리가 어떤 사람든지 죽이는 것은 법에 어긋나나이다, 하니

32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 곧 그분께서 자기가 어떤 죽음으로 죽을지 겐으로 드러내 보여 주시며 하신 말씀이 성취되게 하려 함이더라.

33 그때에 빌라도가 다시 재판정으로 들어가 예수님을 불러 그분께 이르되, 네가 유대인들의 왕이냐? 하매

34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네가 스스로 이것을 말하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그것을 말하였느냐? 하시니

35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네 민족과 수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겨주었느니라.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하매

36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나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에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37 그러므로 빌라도가 그분께 이르

되, 그러면 네가 왕이나? 하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왕이라고 네가 말하는도다. 내가 이런 목적으로 태어났고 이런 까닭으로 세상에 왔나니 곧 나는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하노라. 진리에 속한 자는 다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시니

38 빌라도가 그분께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나? 하더라. 빌라도가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잘못도 찾지 못하노라.

예수님께서 바라바 대신  
죽음에 넘겨지심(마27:15-23;  
막15:6-15; 눅23:13-25)

39 그러나 유월절에 내가 한 사람을 너희에게 놓아주는 관례를 너희가 가지고 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유대인들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매

40 그때에 그들이 모두 다시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이니이다, 하니라. 그런데 바라바는 강도더라.

## 제 19 장

군사들이 예수님을 조롱함  
(마27:27-31; 막15:16-20)

1 그런 까닭으로 그때에 빌라도가 예수님을 데려다가 채찍질하였으며

2 군사들이 가시나무로 왕관을 엮어 그분의 머리에 씌우고 자주색 긴 옷을 그분께 입힌 뒤

3 이르기를, 만세, 유대인들의 왕이여! 하며 손으로 그분을 때리더라.

4 그러므로 빌라도가 다시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를 너희에게 데려오나니 이것은 내가 그에게서 아무 잘못도 찾지 못함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하더라.

빌라도의 최종 결정

5 그때에 예수님께서 가시나무로 엮은 왕관을 쓰고 자주색 긴 옷을 걸치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이르

되, 이 사람을 보라! 하니라.

6 그러므로 수제사장들과 직무 수행자들이 그분을 보고 소리 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아무 잘못도 찾지 못하노라, 하므로

7 유대인들이 그에게 응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는데 우리 법에 따라 그는 죽어야만 하리니 이는 그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었기 때문이니이다, 하니라.

8 ¶ 그러므로 빌라도가 그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며

9 다시 재판정으로 들어가 예수님께 이르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였으나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10 그때에 빌라도가 그분께 이르되, 네가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게는 너를 십자가에 못 박을 권력도 있고 놓아줄 권력도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느냐? 하매

11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주께서 위로부터 내게 권력을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대적할 권력을 내가 결코 갖지 못하였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네게 넘겨준 자에게는 더 큰 죄가 있느니라, 하시니라.

12 이때부터 빌라도가 그분을 놓아주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소리 질러 이르되, 당신이 만일 이 사람을 놓아주면 당신은 카이사르의 친구가 아니니이다. 누구든지 자기를 왕으로 만드는 자는 카이사르를 대적하여 말하나이다, 하니라.

13 ¶ 그러므로 빌라도가 그 말을 듣고는 예수님을 데리고 나가 포장 바닥이라 불리지만 히브리어로는 갇바다라고 하는 곳에 있는 재판석에 앉으니라.

14 그날은 유월절의 예비일이요 때는 여섯 시쯤이더라. 그가 유대인

들에게 이르되, 너희 왕을 보라! 하니  
 15 그들이 소리를 지르되, 그를 없애 버리소서, 그를 없애 버리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므로 빌라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하매 수제사장들이 대답하되, 카이사르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라.

16 그러므로 그때에 그가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예수님을 데려다가 끌고 가니라.

왕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  
 (마27:32-56; 막15:21-32; 눅23:26-43)

17 그분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해골의 장소라 하는 곳으로 나가셨는데 이곳은 히브리어로 골고다라 하느니라.

18 그들이 거기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고 다른 두 사람도 그분과 함께 양쪽에 하나씩 못 박았으며 예수님은 한가운데 두었더라.

19 ¶ 빌라도가 명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였는데 그것의 글은 유대인들의 왕 나사렛 예수더라.

20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 그 도시에서 가까우므로 그때에 유대인들 중의 많은 자들이 이 명패를 읽었는데 그것은 히브리어와 그리스어와 라틴어로 기록되었더라.

21 그때에 유대인들의 수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들의 왕이라 쓰지 말고 그가 이르기를, 나는 유대인들의 왕이라, 했다고 쓰소서, 하니

22 빌라도가 응답하되, 내가 쓴 것을 내가 썼다, 하니라.

23 ¶ 그때에 군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분의 옷들을 취해 네 몫으로 나누어 각 군사가 한 몫씩 차지하며 그분의 겹옷도 취하였는데 그 겹옷은 이음새 없이 위에서부터 통째로 짠 것이더라.

24 그러므로 그들이 자기들끼리 이르되, 우리가 그것을 찢지 말고 그

것이 누구의 소유가 될지 정하기 위해 그것을 두고 제비를 뽑자, 하니 이것은, 그들이 자기들끼리 내 옷을 나누며 내 겹옷을 두고 제비를 뽑았나이다, 하고 말하는 성경기록이 성취되게 하려 함이더라. 그러므로 군사들이 이 일들을 행하였더라.

네 어머니를 보라

25 ¶ 한편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분의 어머니와 그분의 이모요 클로바의 아내인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서 있었으므로

26 예수님께서 자기 어머니와 자기가 사랑한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이르시되, 여자여, 당신의 아들을 보소서! 하시고

27 그 뒤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네 어머니를 보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 제자가 그녀를 자기 집에 모시니라.

다 이루었다

28 ¶ 이 일 뒤에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일이 이루어졌음을 아시고 성경기록이 성취되도록 하기 위해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29 마침 거기에 식초가 가득 담긴 그릇이 놓여 있으므로 그들이 해면을 식초로 적신 뒤 우슬초에 달아 그분의 입에 대니라.

30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식초를 받으신 뒤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며 숨을 거두시니라.

군사들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름

31 이에 유대인들이 그날이 예비일이므로 안식일에 그 몸들을 십자가에 남겨 두지 아니하려고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그 몸들을 치워 달라고 간청하였으니 (이는 그 안식일이 큰 날이었기 때문이라.)

32 그때에 군사들이 가서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었으나

33 예수님께 와서는 그분께서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그분의 다리를

꺾지 아니하니라.

34 그러나 군사들 중 하나가 창으로 그분의 옆구리를 찌르니 즉시로 거기서 피와 물이 나오더라.

35 그것을 본 자가 증언하였으며 그의 증언은 참되니라. 그는 자기가 참되게 말하고 있음을 아나니 이것은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니라.

36 이 일들이 이루어진 것은, 그의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경기록이 성취되게 하려 함이더라.

37 또 다른 성경기록이 다시 이르되, 그들이 자기들이 찌른 자를 보리라, 하느니라.

예수님께서 부자의 무덤에 묻히심

(마27:57-61; 막15:42-47;

눅23:50-56)

38 ¶ 아리마대 출신의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였으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은밀히 따르더라. 이 일 뒤에 그가 빌라도에게 간청하여 자기가 예수님의 몸을 가져갈 것을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므로 그가 가서 예수님의 몸을 가져가니라.

39 또 처음에 예수님께 밤에 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알로에 섞은 것을 백 근쯤 가져왔으므로

40 그때에 그들이 예수님의 몸을 가져다가 유대인들이 장사하는 방식대로 그 향료와 함께 아마포로 쌌더라.

41 그런데 그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그 동산 안에는 아직까지 결코 사람을 둔 적이 없는 새 돌무덤이 있으므로

42 그들이 유대인들의 예비일로 인해 예수님을 거기에 두니 이는 그 돌무덤이 가까이 있었기 때문이더라.

## 제 20 장

빈 무덤(마28:1-10;

막16:1-8; 눅24:1-12)

1 주의 첫날 일찍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돌무덤에 와서 돌이 돌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2 그때에 달려가서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다른 제자에게 다가가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이 주를 돌무덤에서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3 그러므로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돌무덤으로 가니라.

4 이렇게 그들 돌이 같이 달려갔는데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를 앞질러 달려가 먼저 돌무덤에 다다른 뒤

5 몸을 구부려 안을 들여다보고 아마포가 놓인 것을 보았으나 아직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라.

6 그 뒤 시몬 베드로가 그를 따라와서 돌무덤에 들어가 보니 아마포가 놓여 있고

7 또 그분의 머리를 감쌌던 수건은 아마포와 함께 놓여 있지 않고 잘 접힌 채 한곳에 따로 놓여 있더라.

8 그제야 돌무덤에 먼저 다다른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서 보고 믿었으니

9 이는 그들이, 그가 반드시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일어나야 하리라, 하는 성경기록을 아직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더라.

10 이에 그 제자들이 다시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심

11 ¶ 그러나 마리아는 슬피 울며 돌무덤 밖에 서 있다가 슬피 울면서 몸을 구부려 돌무덤 속을 들여다보고

12 흰옷을 입은 두 천사가 예수님의 몸이 놓였던 곳에 하나는 머리 쪽에 다른 하나는 발 쪽에 앉은 것을 보고 있는데

13 그들이 그녀에게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슬피 우느냐? 하므로 그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 주를 옮겨갔으나 그들이 그분을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니이다, 하니라.

14 그녀가 이렇게 말하고 몸을 뒤



로 돌려 예수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그분이 예수님이심을 알지 못하였는데

15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슬피 우느냐?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그녀가 그분을 동산지기로 생각하고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며, 당신이 그분을 여기서 옮기셨거든 그분을 어디 두셨는지 내게 알려 주소서. 그러면 내가 그분을 모셔 가리이다. 하매

16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마리아야, 하고 말씀하시므로 그녀가 몸을 돌려 그분께, 랍보니여, 하고 말하니 이것은, 선생님이여, 라는 말이다.

17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대지 말라. 내가 아직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다만 내 형제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18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자기가 주를 보았다는 것과 그분께서 자기에게 이것들을 말씀하셨다는 것을 고하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심  
(마28:16-20; 막16:14-18;  
눅24:36-49; 행1:3-8)

19 ¶ 그 뒤 같은 날 곧 주의 첫날 저녁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서 문들을 닫았는데 예수님께서 오사 한가운데 서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화평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20 이렇게 친히 말씀하신 뒤 자기 손들과 자기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이시니 그때에 제자들이 주를 보고 반가워하매

21 그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화평이 있을지어다.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같이 그렇게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니라.

22 그분께서 이것을 말씀하시고

그들 위로 숨을 내쉬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23 너희가 누구의 죄들이든지 사면하면 그것들이 그들에게 사면될 것이요, 누구의 죄들이든지 그대로 두면 그것들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보지 않고 믿은 자가 복이 있음

24 ¶ 그러나 열두 제자 중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그들과 함께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25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였으나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분 손들의 못 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 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분 옆구리에 넣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26 ¶ 여드레가 지나서 다시 그분의 제자들이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그들과 함께 있더라. 그때에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님께서 오사 한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화평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27 그 뒤에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들을 보고 네 손을 이리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으라. 그리고 믿을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시니

28 도마가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매

29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도마야, 너는 나를 보았으므로 믿었으나 보지 않고도 믿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이 책을 기록한 목적

30 ¶ 진실로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들도 많이 행하셨으나

31 이것들을 내가 기록함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믿고 그분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 제 21 장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심

1 이 일들 뒤에 예수님께서 디베라 바다에서 제자들에게 다시 자기를 보이시되 이렇게 자기를 보이시니라.

2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출신의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그분의 제자들 중 다른 두 사람이 함께 있었는데

3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도 너와 함께 가노라, 하고 그들이 나가서 즉시 배에 올랐으나 그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라.

4 그런데 이제 아침이 될 때에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서 계셨으나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이심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5 그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애들아, 너희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그분께 대답하되, 없나이다, 하매

6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지라, 그러면 너희가 얻으리라, 하시므로 그들이 던졌더니 이제 물고기들이 많아 그들이 그물을 당길 수 없더라.

7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그분은 주시라, 하니 이제 시몬 베드로가 그분이 주시라는 말을 듣고는 (벗고 있었으므로) 어부의 덧옷을 걸친 뒤 바다로 뛰어들더라.

8 다른 제자들은 (땅에서 멀리 있지 않고 이백 큐빗쯤 되는 곳에 있었으므로) 작은 배를 타고 가서 물고기들이 담긴 그물을 끌고 왔는데

9 그 때에 그들이 육지로 올라와 곧 바로 보니 저기에 숯불이 있고 그 위에 물고기가 놓여 있으며 빵도 있더라.

10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지금 너희가 잡은 물고기를 가져오라, 하시므로

11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 큰 물고기들이 가득한 그물을 땅으로 끌어당기니 백선세 마리가 있더라. 모든 것이 그렇게 많았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12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와서 먹으라, 하시니 그분이 주시라는 것을 제자들이 알므로 아무도, 선생님이 누구시니까? 하고 감히 그분께 묻지 아니하더라.

13 그 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빵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물고기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14 이제 이것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신 뒤에 세 번째 자기 제자들에게 자기를 보이신 것이더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회복시키심

15 ¶ 이렇게 그들이 먹은 뒤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그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매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어린양들을 먹이라, 하시고

16 다시 두 번째 그에게 이르시되,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그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매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양들을 먹이라, 하시고

17 세 번째 그에게 이르시되,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그분께서 자기에게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말씀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며 그분께 이르되, 주여,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양들을 먹이라.

18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를 띠고 네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으나 늙어서는 내가 네 손을 내밀 것ियो, 그러면 다른 사람이 네게 띠를 띠워 네가 원하는 곳으로 너를 데려가리라, 하시니라.

19 그분께서 이것을 말씀하신 것은 그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 겉으로 드러내 보여 주려 하심이더라. 그분께서 이것을 말씀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제자

20 그때에 베드로가 돌아서서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았는데 그는 또한 만찬 자리에서 그분의 가슴에 기대어, 주여, 주를 배반하여 넘겨주는 자가 누구니 이까? 하고 말한 자더라.

21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님께 이르되, 주여, 이 사람은 무엇을 하리이

까? 하니

22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가 머물 것을 내가 원할지라도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23 그때에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이 말이 형제들 가운데 널리 퍼졌으나 예수님께서서는 그에게,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올 때까지 그가 머물 것을 내가 원할지라도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고 말씀하셨더라.

24 이것들을 증언하고 이것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되다는 것을 아노라.

25 예수님께서 행하신 다른 일들도 많으므로 만일 그것들이 낱알이 기록된다면 세상 그 자체도 기록된 책들을 담을 수 없을 줄로 나는 생각하노라. 아멘.

## 로 마 서

기록자: 바울, 기록 시기: 주후 57년경, 성격: 교리

수신자: 일차적으로는 로마 교회 성도들이며 실제적으로는 모든 성도들  
이름: 이 서신의 이름은 바울이 편지를 써서 보낸 로마 교회에서 유래하였다(1:7). 바울은 로마를 방문하기 바랐으며 그곳의 성도들이 이 편지를 통해 자기의 방문을 예비하기 원했다. 이 편지는 겐그레아 교회의 여종인 뵈베를 통해 로마 교회에 전달되었다(16:1-2). 당시 로마 교회는 오순절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심한 사람들이 세운 것으로 보인다. 바울 시대에 로마는 세계의 중심 도시였고 네로가 황제로 있었다. 주제: 하나님의 의를 보여 주는 복음, 목적: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아 의롭다고 인정받는 다.”라는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확증하는 것

내용: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자연의 빛이나 그 빛에 순종하려는 행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믿음에 의해 의롭다고 인정받는 칭의 교리를 가르친다. 또한 유대인들에게는 모세의 율법이나 율법의 행위에 의해 구원받을 수 없음을 보여 준다. 그는 인간의 죄악과 사악함 그리고 비참함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의가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의해 그들에게 전가될 수 있음을 가르친다. 또 그는 구원의 결과로 나타나는 화평과 기쁨(5장), 거룩한 삶(6장)을 보여 주고 자신의 경험을 통해 구원받았어도 여전히 죄가 있음을 알려 주며(7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음(8장)을 제시한다. 또 그는 자신의 친족인 육적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의 열망과 하나님의 계획(9-11장)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나타나는 성령님의 권능(12-16장)을 보여 준다. 로마서는 16장, 433절, 9,422개 영어 단어로 구성되어 있다. 핵심 장: 3장(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핵심 절: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그리스인에게로다.”(1:16) 핵심 단어: 의(66회), 믿음(62회), 칭의(17회), 인정(19회), 그리스도 안에(33회), 율법(78회), 죄(60회), 핵심 구: ‘하나님의 의’(1:17), 로마서의 그리스도: 우리의 의가 되신 주(10:4; 롬23:6), 영적 교훈: 하나님의 의를 입으라.

### 제 1 장

#### 인사

1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구별되었는데

2 (이 복음은 그분께서 자신의 대언자들을 통해 거룩한 성경기록들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3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에 관한 것이라. 그분께서는 육체로는 다윗의 씨에서 나셨고

4 거룩함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심으로써 권능 있게 하나님의 아들로 밝히 드러나셨느니라.

5 그분에 의해 우리가 은혜와 사도직을 받아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믿음에 순종하게 하였는데

6 너희도 그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니라.

7 바울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로마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화평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로마 방문 계획과 소원

8 먼저 너희 모두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의 하나님께 내가 감

사하노니 이는 너희 믿음이 두루 온 세상에 전하여졌기 때문이다.

9 그분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가 내 영으로 섬기는 하나님께서 내 증인이 되시나니 나는 기도할 때에 언제나 너희에 관하여 끊임없이 말하며

10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뜻에 의해 이제 마침내 순탄한 여정을 얻어 너희에게 갈 수 있기를 간구하노라.

11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함은 내가 너희에게 어떤 영적 선물을 나누어 주어 너희를 굳게 세우려 함이니

12 이것은 곧 너희와 나 사이의 공동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와 함께 위로를 받으려 함이라.

13 형제들아, 이제 나는 너희가 이것을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즉 내가 다른 이방인들 가운데서 열매를 얻은 것같이 너희 가운데서도 어떤 열매를 얻기 위해 여러 번 너희에게 가려고 계획하였으나 (지금까지 방해 를 받았느니라.)

14 나는 그리스인이나 바바리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지혜 없는 자에게 다 빚진 자니라.

15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분량에 따라 나는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선포할 준비가 되어 있노라.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

16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그리스인에게로다.

17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불의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

18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아 두는 사람들의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모든 것과 불의를 대적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되었나니

19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

들 속에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20 그분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은 세상의 창조 이후로 분명히 보이며 만들어진 것들에 의해 이해될 수 있으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느니라.

21 그들이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으로서 그분이 받으실 영광을 그분께 돌리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자기들의 상상 속에서 허망해졌고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22 그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선언하나 어리석은 자가 되어

23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을 사람이나 새나 네발 달린 짐승들이나 기는 것들과 같은 형상으로 바꾸었느니라.

24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그들 마음의 정욕을 통해 부정함에 내주사 그들이 자기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25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자보다 창조물을 더 경배하며 섬겼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받으실 분이시니라. 아멘.

26 이런 까닭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수치스러운 애정에 내주셨으니 이는 심지어 그들의 여자들도 본래대로 쓸 것을 본성에 반하는 것으로 바꾸었기 때문이다.

27 이와 같이 남자들도 본래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해 욕정에 불타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보기 흉한 짓을 행함으로 자기 잘못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자기 속에 받았느니라.

28 그들이 자기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 대로 그렇게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버림받은 생각에 내주사 합당하지 못한 그 일들을 행하게 하셨으니

29 그들은 모든 불의와 음행과 사

악함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하며 시기와 살인과 논쟁과 속임수와 적개심으로 가득하고 수군수군하는 자들이요,

30 뒤에서 헐뜯는 자들이며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이요, 업신여기며 교만하고 자랑하는 자들이며 악한 일들을 꾸미는 자들이요,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31 지각이 없고 언약을 어기는 자들이며 본성의 애정이 없고 화해하기 어려우며 긍휼이 없는 자들이다.

32 그들이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면서도 같은 일들을 행할 뿐만 아니라 그런 일들 행하는 자들을 기뻐하느니라.

## 제 2 장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

1 그러므로, 오 판단하는 사람아, 네가 누구이든 변명할 수 없나니 이는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들을 행하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으로 너 자신을 정죄하기 때문이다.

2 그러나 우리는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을 대적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이루어짐을 확신하노라.

3 오 그런 일들 행하는 자들을 판단하면서도 같은 일들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느냐?

4 혹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한 채 네가 그분의 선하심과 관대하심과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5 오히려 네가 네 강박함과 뉘우치지 아니하는 마음에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닥칠 진노를 네게 쌓아 올리는 도다.

6 그분께서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7 참고 꾸준히 잘 행함으로 영광과

존귀와 죽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으로 갚으시고

8 논쟁하기 좋아하며 진리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의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격노와 진노로 갚으시리라.

9 악을 행하는 사람의 각 혼 위에 환난과 고통이 닥치리니 먼저는 유대인의 혼 위요 또한 이방인의 혼 위에도

10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와 화평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이방인에게로다.

11 이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이니라.

12 율법 밖에서 죄를 지은 자들은 또한 다 율법 밖에서 멸망하고 율법 안에서 죄를 지은 자들은 다 율법으로 심판을 받으리니

13 (이는 율법을 듣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하는 자들이 의롭다고 인정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14 율법을 소유하지 않은 이방인들이 본성에 따라 율법 안에 들어 있는 것들을 행할 때에 이들은 율법을 소유하지 않아도 자기가 자기에겐 율법이 되나니

15 이들은 또한 자기 양심이 증언하며 자기 생각들이 서로 고소하거나 변명하는 가운데 자기 마음속에 기록된 율법의 행위를 보이느니라.)

16 이런 심판은 하나님께서 나의 복음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람들의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그날에 이루어지리라.

유대인들도 이방인들처럼 유죄임

17 보라, 네가 유대인이라 불리고 율법 안에 안주하며 하나님을 자랑하고

18 율법에서 가르침을 받아 그분의 뜻을 알며 훨씬 더 뛰어난 것들을 입증하고

19 또 너 스스로 눈먼 자들의 안내자요,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의 빛이며

20 율법에 있는 지식의 틀과 진리

의 틀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의 스승이요, 아기들의 교사라고 확신하는도다.

21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너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사람이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고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22 사람이 간음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들을 혐오하는 네가 신전 물건을 몰래 취하느냐?

23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어김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24 이것은 기록된 바,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해 이방인들 가운데서 모독을 받는도다, 함과 같으니라.

율법과 할례

25 네가 율법을 지키면 할례가 참으로 유익하지만 네가 율법을 어기는 자가 되면 네 할례가 무할례가 되나니

26 그러므로 무할례자가 율법의 의를 지키면 그의 무할례가 할례로 여겨져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27 또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이행하면 글자와 할례를 통해 율법을 범하는 너를 판단하지 아니하겠느냐?

28 이는 겉으로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겉으로 육체에 행하는 할례가 그 할례가 아니기 때문이라.

29 오히려 속으로 유대인이 유대인이요 할례는 마음의 할례 즉 글자 안에 있지 아니하고 영 안에 있는 할례니라. 이런 사람에 대한 칭찬은 사람들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나느니라.

### 제 3 장

하나님의 심판이 마땅함을 변호함

1 그러면 유대인에게 어떤 이점이 있느냐? 혹은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2 모든 면에서 많은데 주된 이유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들이 맡겨졌

다는 것이라.

3 그런데 만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들의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무효로 만들겠느냐?

4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참으로 하나님은 진실하시되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라 할지어다. 이것은 기록된 바, 이로써 주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들에 의롭다 인정받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시리이다, 함과 같으니라.

5 그러나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다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내가 사람이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보복하시는 하나님께서 불의하시나?

6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겠느냐?

7 만일 내 거짓말을 통해 하나님의 진리가 더욱 풍성하게 되어 그분이 영광을 얻게 되었다면 어찌하여 내가 여전히 또한 죄인으로 심판을 받고 있느냐?

8 차라리, 선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악을 행하자, 하고 말해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처럼 우리가 중상모략으로 비방을 받으며 이처럼 어떤 자들은 우리가 그렇게 말한다고 확언하니) 그들이 정죄받는 것이 옳으니라.

모든 사람이 죄인임

9 그러면 무어라고 말하겠느냐? 우리는 그들보다 나은가? 결코 아니라. 우리는 앞에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검증하여 그들이 다 죄 아래 있음을 보였느니라.

10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11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으며

12 그들이 다 길에서 벗어나 함께 무익하게 되었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

13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돌무덤

이고 그들은 자기 혀로 속임수를 썼으며 그들의 입술 밑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14 그들의 입은 저주와 쓴 것으로 가득하며

15 그들의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르므로

16 파멸과 고통이 그들의 길에 있어

17 그들이 화평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18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19 이제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율법이 어떤 것들을 말하든지 그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나니 이것은 모든 입을 막아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서 유죄가 되게 하려 함이라.

20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들로는 어떤 육체도 그분의 눈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없나니 율법에 의해서는 죄를 알게 되느니라.

믿음을 통한 하나님의 의

21 그러나 이제는 율법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 곧 율법과 대언자들이 증언한 의가 드러났는데

22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의해 모든 자들에게 미치고 믿는 모든 자들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의니 이는 그 의에 차별이 없기 때문이다.

23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24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고 인정받았느니라.

25 그분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한 화해 헌물로 제시하셨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참으심을 통해 과거의 죄들을 사면하심으로써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려 하심이요,

26 내가 말하노니 이것은 곧 이때에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사 자신이 의로우시며 또 예수님을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라는 것을 보이려 하심이라.

한 하나님

27 그러면 자랑할 것이 어디 있느냐? 그것은 배제되었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의 법으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28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이 율법의 행위 없이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는다고 결론을 내리노라.

29 그분은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시냐? 그분은 또한 이방인들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참으로 또한 이방인들의 하나님이시니

30 할례자를 믿음에 의해 또 무할례자를 믿음을 통해 의롭다고 하실 분은 한 하나님이시니라.

31 그러면 우리가 믿음을 통해 율법을 헛되게 만드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 제 4 장

율법 이전 시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음

1 그러면 육체에 관한 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발견한 것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2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고 인정받았으면 그 일에 대하여 자랑할 것이 그에게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3 성경기록이 무어라고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매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하느니라.

4 그런데 일하는 자에게는 품삯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겨지지만

5 일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분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지느니라.

율법 시대: 다윗이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음

6 이것은 또한 다윗이 행위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의가 있다고 여기시는



사람의 복된 일을 묘사하여

7 이르되, 자기 불법들을 용서받고 자기 죄들이 가려진 자들은 복이 있으며

8 주께서 죄가 있다고 여기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브라함은

할례 전에 의롭다고 인정받음

9 그러면 이 복된 일이 할례자에게만 오느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 오느냐? 이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의로 간주되었다고 우리가 말하기 때문이다.

10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의로 간주되었느냐? 그가 할례받은 때였느냐, 할례받지 않은 때였느냐? 할례받은 때가 아니요, 할례받지 않은 때니라.

11 그가 할례의 표적 곧 아직 할례받지 않은 때에 자기가 소유한 믿음의 의를 봉인한 표식을 받았으니 이것은 그가 할례를 받지는 아니하였으나 믿는 모든 자들의 조상이 되어 의가 그들에게도 전가되게 하려 함이요,

12 또 할례자들에게 속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아직 할례받지 않은 때에 소유한 그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 걷는 자들에게 할례의 조상이 되려 함이라.

아브라함의 약속은

믿음을 통해 주어짐

13 그가 세상의 상속자가 되려고 하신 그 약속은 아브라함에게나 그의 씨에게나 율법을 통해 주어지지 아니하고 믿음의 의를 통해 주어졌느니라.

14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가 되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그 약속은 효력을 잃게 되느니라.

15 이는 율법이 진노를 이루기 때문이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16 그러므로 그것이 은혜로 되게 하려고 믿음에서 나나니 이것은 그 약속이 모든 씨에게 즉 율법에 속한

그 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그 씨에게도 확고해지게 하려 함이라.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의 조상이니라.

17 (이것은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들의 조상으로 삼았느니라, 함과 같으니) 그가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들을 살리시고 존재하지 않는 것들을 마치 그것들이 존재하는 것처럼 여기며 부르시는 분이시니라.

18 그가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면서 믿었으니 이것은, 네 씨가 이와 같으리라, 하고 주께서 말씀하신 그것대로 그가 많은 민족들의 조상이 되려 함이라.

19 그는 백 세쯤 되었을 때에 믿음이 약하지 아니하여 당시 죽어 있는 자기 몸을 고려하지 아니하였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도 고려하지 아니하였으며

20 믿지 아니함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에 관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믿음이 강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21 그분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분께서 또한 이행하실 수 있음을 온전히 확신하였으니

22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전가되었느니라.

23 그런데 그것이 그에게 의로 전가되었다고 기록된 것은 그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24 우리가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을 믿는다면 그것이 의로 전가될 우리도 위한 것이니라.

25 그분께서는 우리의 범죄들로 인해 넘겨지셨으며 우리를 의롭다 하시려고 다시 일으켜지셨느니라.

## 제 5 장

믿음은 고난 중에 승리함

1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를 통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도다.

2 우리가 또한 그분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에 믿음으로 들어감을 얻었고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기뻐하느니라.

3 그리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도 기뻐하나니 이는 환난이 인내를 이루고

4 인내가 체험을, 체험이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알기 때문이라.

5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님에 의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넓게 부어졌기 때문이니

6 우리가 아직 힘이 없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정해진 시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자들을 위해 죽으셨느니라.

7 의로운 사람을 위해 죽으려는 자가 거의 없고 또한 선한 사람을 위해 감히 죽으려 하는 자가 혹시 있을 수 있지만

8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9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분의 피로 의롭다고 인정받았으므로 더욱더 그분을 통해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으리니

10 이는 우리가 원수였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에 의해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화해하게 된 자로서 더욱더 그분의 생명에 의해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11 그뿐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속죄를 받은 우리가 그분을 통해 또한 하나님을 기뻐하느니라.

아담과 그리스도

12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으며 이로써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었으니 이

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13 (율법이 올 때까지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가 그들에게 전가되지 아니하였느니라.

14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법과 같은 종류의 죄를 짓지 않은 자들 위에도 사망이 군림하였는데 아담은 오셔야 할 분의 모형이니라.

15 그러나 그 거저 주시는 선물은 또한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이는 한 사람의 범죄를 통해 많은 사람이 죽었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더욱더 넘쳤기 때문이다.

16 또 그 선물은 죄지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과 같지 아니하니 이는 한 범죄로 말미암은 심판은 정죄에 이르렀으나 많은 범죄로 인한 그 거저 주시는 선물은 의롭다 하심에 이르기 때문이다.

17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한 사람을 통해 군림하였다면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더욱더 생명 안에서 군림하리라.)

18 그러므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심판이 모든 사람에게 와서 정죄를 받게 한 것같이 그렇게 한 사람의 의로 말미암아 그 거저 주시는 선물도 모든 사람에게 와서 생명의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였나니

19 이는 한 사람의 불순종에 의해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같이 그렇게 한 사람의 순종에 의해 많은 사람이 의롭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20 또한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가 넘치게 하려 함이었으나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더욱더 넘쳤나니

21 이것은 죄가 군림하여 사망을 사방에 이르게 한 것같이 그렇게 은혜도 의를 통해 군림하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 제 6 장

죄를 향해서는 죽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살아 있다

1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

2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죄를 향해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더 살겠느냐?

3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가 다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은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4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에 의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것같이 그렇게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려 함이라.

5 만일 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함께 심겼으면 또한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되리라.

6 우리는 이 사실을 아노라. 즉 우리의 옛 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절되어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

7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이다.

8 이제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 줄을 우리가 믿노니

9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시었으므로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상이 다시는 그분을 지배하지 못하는 줄 우리가 알기 때문이다.

10 그분께서 죽으신 것은 죄를 향해 한 번 죽으신 것이요, 그분께서 살아 계시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 살아 계시는 것이니

11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를 향해서는 참으로 죽어 있지만

하나님을 향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살아 있는 것으로 여길지이다.

12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의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정욕 안에서 죄에게 순종하지 말고

13 너희 지체들을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주지 말며 오히려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들로서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 지체들을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

14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리라.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15 그러면 무슨 말을 하겠느냐?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를 짓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16 너희가 어떤 사람에게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순종하면 너희가 순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17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할지이다. 너희가 죄의 종이었으나 너희에게 전 달된 교리의 그 틀에 너희가 마음으로 부터 순종하고

18 이로써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19 너희 육신이 연약하므로 내가 사람들의 관례대로 말하노니 너희가 너희 지체들을 부정함과 불법에게 종으로 내주어 불법에 이르렀던 것같이 그렇게 이제는 너희 지체들을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20 너희가 죄의 종이었을 때에는 의로부터 자유로웠느니라.

21 너희가 지금은 부끄러워하는 그 일들 안에서 그때에 너희가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그 일들의 끝은 사망이니라.

22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너희의 열매를 얻었는데 그 끝은 영존하는 생명이니라.

23 죄의 값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 제 7 장

### 율법에서 벗어남

1 형제들아, (내가 법을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법이 사람이 살아 있는 동안에만 그를 지배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2 남편 있는 여인이 자기 남편이 살아 있을 때에는 법에 의해 그에게 매여 있으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녀가 자기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3 그러므로 만일 그녀가 자기 남편이 살아 있을 때에 다른 남자와 결혼하면 간음한 여자라 불릴 것이지만 그녀의 남편이 죽으면 그녀가 그 법에서 해방되므로 그녀가 다른 남자와 결혼해도 간음한 여자가 아니니라.

4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해 죽게 되었나니 이것은 너희가 다른 분 곧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 분과 결혼하게 하려 함이요, 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5 우리가 육신 안에 있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들의 활동들이 우리 지체들 속에서 일하여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하였으나

6 우리를 붙들던 것 안에서 우리가 죽었으므로 이제 우리가 율법에서 구출되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고 글자의 낡은 것으로 섬기지 않게 하려 함이라.

7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율법이 죄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통하지 않고서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리니 율법이, 너는 탐내지 말라,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욕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8 그러나 죄가 명령을 통해 기회를 틈타 내 안에서 온갖 종류의 욕정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었기 때문이다.

9 전에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내가 살아 있었으나 명령이 오매 죄가 되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10 생명에 이르게 하려고 제정된 명령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임을 내가 알았나니

11 이는 죄가 명령을 통해 기회를 틈타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기 때문이다.

12 그러므로 율법도 거룩하고 명령도 거룩하며 의롭고 선하다.

율법은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13 그러면 선한 그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오히려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하려고, 죄가 선한 그것을 통해 내 안에서 사망을 이루었나니 이것은 죄가 명령을 통해 심히 넘치도록 죄 되게 하려 함이니라.

14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율법은 영적이지만 나는 육신적이어서 죄 아래 팔렸도다.

15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인정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은 내가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미워하는 것, 그것을 내가 행하기 때문이다.

16 그런즉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내가 행하면 율법이 선하다는 사실에 대해 내가 율법에 동의하노니

17 그러면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거하는 죄니라.

18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한 그것을 어떻게 이행할지는 내가 찾지 못하노라.

19 이는 내가 원하는 선은 내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악, 그것을 내가 행하기 때문이라.

20 그런데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내가 행하면 그것을 행하는 자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거하는 죄니라.

21 그런즉 내가 한 법을 발견하노니 그것은 곧 내가 선을 행하기 원할 때에 악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이다.

22 내가 속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23 내 지체들 속에서 다른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 내 지체들 안에 있는 죄의 법에게 나를 사로잡아 가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24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출하랴?

25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런즉 이처럼 나 자신이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 제 8 장

그리스도 안에는 정죄함이 없음

1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2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다.

3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셨나니 곧 죄로 인해 자신의 아들을 죄 많은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사 그 육신 안에 죄를 정죄하셨느니라.

4 이것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는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가 성취되게 하려 함이니라.

5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되 성령을 따르는 자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나니

6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화평이니라.

7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하며 참으로 복종할 수도 없으므로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이니라.

8 그러므로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9 그러나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분의 사람이 아니니라.

10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11 그러나 만일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성령을 통해 양자 됨

12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들이지만 육신을 따라 살도록 육신에게 빚지지 아니하였느니라.

13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나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14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15 이는 너희가 다시 두려움에 이르게 하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분을 의지하여 우리가, 아바, 아버지, 하고 부르짖느니라.

16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17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인데 우리가 그분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당하면

그러하시니라.

고난에서 영광으로

18 내가 생각하건대 이 현대의 고난들은 앞으로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족히 비교될 수 없도다.

19 창조물이 간절히 기대하며 기다리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라.

20 창조물이 헛된 것에 복종하게 된 것은 자진해서 된 것이 아니라 소망 중에 바로 그것을 복종하게 하신 분으로 인한 것이니

21 이는 창조물 그 자체도 썩음의 속박에서 구출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스러운 해방의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다.

22 온 창조 세계가 지금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 중에 산고를 치르는 줄을 우리가 아나니

23 그것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 곧 성령의 첫 열매를 소유한 우리 자신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 삼으심 즉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림은

24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 어찌하여 사람이 자기가 보는 것을 여전히 바라겠느냐?

25 그러나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바란다면 인내로 그것을 기다리느니라.

26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방식대로 무엇을 위해 기도할지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로 할 수 없는 신음으로 친히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27 마음을 살피시는 분께서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시나니 이는 그분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해 중보하시기 때문이다.

28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29 하나님께서 자신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30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예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자신이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자신이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끝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31 그러면 이 일들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느냐?

32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그분을 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아니하겠느냐?

33 누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을 무슨 일로 고소하겠느냐?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34 정죄하는 자가 누구냐?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시요, 참으로 다시 일어나신 분도 그리스도신데 그분께서는 바로 하나님 오른쪽에 계시며 또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35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 놓겠느냐? 환난이나 곤경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벌거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겠느냐?

36 이것은 기록된 바, 주로 인해 우리가 종일토록 죽임을 당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겨졌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37 아니라.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통해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자들이니라.

38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력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 있는 것들이나 장래 있을 것들이나

39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창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 놓을 수 없으리라.

## 제 9 장

이스라엘이 그리스도를 배척함

1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을 말하고 거짓말하지 아니하노라. 내 양심도 성령님 안에서 나에 대해 증언하는데

2 내게는 마음속에 큰 근심이 있고 계속해서 슬픔이 있노라.

3 율체에 따른 내 형제들, 내 친족들을 위해서라면 나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받기를 바랄 수도 있으리니

4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라. 그들에게는 양자 삼오십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주심과 하나님을 섬김과 약속들이 속해 있고

5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며 율체에 관한 한 그리스도께서도 그들에게서 나셨는데 그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며 영원토록 찬송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목적

6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효력을 상실한 것 같지 아니하니 이는 이스라엘에게서 난 자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7 또한 그들이 아브라함의 씨라고 해서 다 아이들이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이삭 안에서 네 씨가 부름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8 즉 율체의 아이들이나 자들, 이들이 하나님의 아이들이 아니요 오히려 약속의 아이들이 그 씨로 여겨지느니라.

9 그 까닭은 약속의 말씀이 이것이기 때문이다. *그분께서 이르시되*, 이 때에 내가 오리니 시라에게 한 아들이 있으리라, *하셨느니라*.

10 이뿐만 아니라 리브가도 한 사람 곧 우리 조상 이삭으로 말미암아 수태하였는데

11 (그 아이들이 아직 태어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하였을 때에 선택에 따른 하나님의 목적이 행위로 말미암아 서지 않고 부르시는 분으로 말미암아 서게 하시려고)

12 *그분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형이 동생을 섬기리라, *하셨나니*

13 이것은 기록된 바, 야곱은 내가 사랑하였으나 에서는 미워하였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공의

14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15 *그분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공흠을 베풀 자에게 공흠을 베풀고 내가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시나니*

16 그런즉 이와 같이 그것은 원하는 자에게서 나지도 아니하고 달리는 자에게서 나지도 아니하며 공흠을 베푸시는 하나님에게서 나느니라.

17 성경기록이 파라오에게 이르기를, 바로 이 목적을 위해 내가 너를 일으켰나니 이것은 내가 네 안에서 내 권능을 보이고 내 이름을 두루 온 땅에 밝히 알리려 함이니라, *하시나니*

18 그러므로 *그분께서는* 친히 공흠을 베풀 자에게 공흠을 베푸시고 친히 강박하게 할 자를 *강박하게 하시느니라*.

19 그러면 내가 내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그분께서* 여전히 허물을 찾으시느냐? 누가 그분의 뜻을 거역하였느냐? 할 터인데

20 아니라, 오 사람아, 내가 누구 이기에 하나님께 대꾸하느냐? 지어진 것이 자기를 지은 이에게,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만들었소, 하고 말하겠느냐?

21 토기장이와 같은 덩어리의 진흙으로 한 그릇을 만들어 존귀에 이르게 하고 다른 하나를 *만들어* 수치에 이르게 할 권력이 없겠느냐?

22 만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진노를

보이고 자신의 권능을 알리기 위하여 파멸시키기에 합당하게 된 진노의 그릇들에게 심히 오래 참으심으로 인내 하시고

23 이로써 영광에 이르도록 자신이 미리 예비한 긍휼의 그릇들에게 자신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리려 하셨다면 무슨 말을 하겠느냐?

24 이 그릇들은 바로 우리나 즉 그분께서 유대인들 중에서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중에서도 부르신 자들이니라.

25 이것은 그분께서 호세아의 글에서도 이르시되, 내가 내 백성이 아니던 자들을 내 백성이라 부르며 사랑받지 못하던 그녀를 사랑받는 자라 부르리라.

26 또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곳에서, 거기에서 그들이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이들이라 불리리라, 하심과 같으니라.

27 이사야도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쳐 이르되, 비록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28 그분께서 그 일을 끝마치시고 의 안에서 그것을 단축하시리니 이는 단축된 일을 주께서 땅 위에서 이루실 것이기 때문이라, 하느니라.

29 이것은 또 이사야가 미리 말한 것 즉, 군대들의 주께서 우리에게 한 씨를 남겨 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같이 되고 고모라같이 되었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스라엘의 현재 상태

30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은 의 곧 믿음에서 난 의에 도달하였으나

31 의의 법을 따른 이스라엘은 의의 법에 도달하지 못하였으니

32 무슨 까닭이나? 이는 그들이 믿음으로 그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처럼 구하였

기 때문이라. 그들은 그 걸림돌에 걸려 넘어졌느니라.

33 이것은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 제 10 장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함

1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을 위해 마음에 소원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노니 이것은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2 내가 그들에 대해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가지고 있으나 그것은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니라.

3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한 채 자기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힘쓰면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4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자에게 의가 되시기 위해 율법의 끝마침이 되시느니라.

5 모세가 율법에서 난 의를 묘사하며, 그것들을 행하는 사람은 그것들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고 말하지만

6 믿음에서 난 의는 이같이 말하되, 네 마음속으로, 누가 하늘로 올라가겠느냐? 하고 말하지 말라, 하나니 (그것은 그리스도를 위에서부터 아래로 모셔 오려는 것이요.)

7 혹은, 누가 깊은 속으로 내려가겠느냐? 하고 말하지 말라, 하나니 (그것은 그리스도를 다시 죽은 자들로부터 위로 모셔 가려는 것이다.)

8 그러나 그것이 무어라고 말하느냐? 말씀이 네게 가까이 있어 네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느니라, 하나니 그것은 곧 우리가 선포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9 내가 만일 네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것을 네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10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11 성경기록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니

12 이는 유대인과 그리스인 사이에 차별이 없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 위에 계신 같은 주께서 자신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니

13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스라엘이 복음을 배척할

14 그러면 그들이 자기들이 믿지 않은 분을 어찌 부르겠느냐? 자기들이 듣지 못한 분을 어찌 믿겠느냐? 선포자가 없이 어찌 듣겠느냐?

15 보내어지지 아니하였다면 그들이 어찌 선포하겠느냐? 이것은 기록된 바, 화평의 복음을 선포하며 좋은 일들의 반가운 소식을 가져오는 자들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함과 같으니라.

16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에 순종하지는 아니하였나니 이사야가 이르기를,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느니라.

17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느니라.

18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못하였느냐? 아니라. 참으로 들었나니 그들의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들의 말들이 세상 끝까지 나갔느니라.

19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백성이 아닌 자들을 시켜 너희의 질투를 일으키며 어리석은 민족을 시켜 너희의 분노를 자아내게 하리라, 하며

20 더욱이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이르기를,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들이 나를 발견하였나니 내게 묻지 아니하던 자들에게 내가 나타났노라, 하되

21 이스라엘에게는 이르기를, 내가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백성을 향해 종일토록 내 손을 내밀었노라, 하느니라.

## 제 11 장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심

1 그러면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버리셨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자니라.

2 하나님께서 자신이 미리 아신 자신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기록이 엘리야에 대해 말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하나님께 중보하며 이르되,

3 주여, 그들이 주의 대언자들을 죽이고 주의 제단들을 파헤쳤으며 나만 홀로 남았는데 그들이 내 생명도 찾나이다, 하나

4 하나님의 대답이 그에게 무어라고 말하느냐? 내가 나를 위해 바알의 형상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칠천 명을 남겨 두었노라, 하나니

5 그런즉 이와 같이 이 현시대에도 은혜의 선택에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6 만일 그것이 은혜로 된 것이라면 더 이상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라. 그러나 만일 그것이 행위에서 난 것이라면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 그렇지 않으면 행위가 더 이상 행위가 아니니라.

7 그러면 결론이 무엇이냐? 이스라엘은 자기가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였으나 선택받은 자는 얻었고 그 나머

지는 이날까지 눈멀게 되었으니

8 (이것은 기록된 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잠들게 하는 영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도다, 함과 같으니라.)

9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그들에게 울무와 함정과 걸림돌과 보응이 되게 하시고

10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등이 항상 굽게 하소서, 하느니라.

이스라엘의 걸려 넘어짐과 그 결과

11 그런즉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걸려 넘어짐으로 쓰러지게 되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오히려 그들의 넘어짐을 통해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왔으니 이것은 그들이 질투하게 하려 함이니라.

12 그런데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고 그들의 쇠퇴함이 이방인들의 부요함이 되거든 그들의 충만함은 얼마나 더 많이 부요함이 되겠느냐?

13 내가 이방인들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들의 사도인 만큼 내 직무를 존귀하게 여기나니

14 이것은 어찌하든지 내가 내 살붙이인 그들을 경쟁하게 하여 그들 중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15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을 화해시키는 것이 되거든 그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들로부터 살어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느냐?

16 첫 열매가 거룩하면 덩어리도 거룩하고 뿌리가 거룩하면 가지들도 그러하니라.

17 또 그 가지들 중에서 얼마가 꺾이고 야생 올리브나무인 내가 그들 가운데 접붙여져서 그들과 함께 올리브나무의 뿌리와 기름짐에 참여하게 되었거든

18 그 가지들을 대적하여 자랑하지 말라. 내가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지탱하지 아니하고 뿌리가 나를 지탱하느니라.

19 그러면 내가 말하기를, 그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내가 접붙여지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20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하므로 꺾였고 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있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21 하나님께서 본래의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거든 그분께서 또한 너를 아끼지 아니하실까 조심하라.

22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엄하심을 보라. 넘어진 자들에게는 엄하심이 있으나 네가 그분의 선하심 안에 거하면 너를 향해서는 선하심이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잘려나가리라.

23 그들도 여전히 믿지 아니하는데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접붙여지리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접붙이실 수 있느니라.

24 네가 본성에 따라 야생인 올리브나무에서 잘린 뒤 본성에 역행하여 좋은 올리브나무에 접붙여졌거든 본래의 가지인 이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자신의 올리브나무에 접붙여지겠느냐?

이스라엘의 최종 구원

25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로운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신비에 대해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그것은 곧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들어올 때까지 일부가 눈머는 일이 이스라엘에게 일어났다는 것이라.

26 이런 식으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은 기록된 바, 시온에서 구출자가 나와 야곱에게서 하나님의 성품에 위배되는 것을 치워 버리리니

27 내가 그들의 죄들을 제거할 때에 이것이 그들을 향한 내 언약이니라, 함과 같으니라.

28 복음에 관하여는 그들이 너희로 인해 원수들이지만 선택에 대하여는 그들이 조상들로 인해 사랑받는

자들이니

29 이는 하나님의 선물들과 부르심에는 뜻을 돌이키는 일이 없기 때문이다.

30 너희가 지나간 때에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그들의 믿지 아니함을 통해 공활을 얻었듯이

31 바로 그렇게 지금 이들도 믿지 아니한 것은 너희가 얻은 공활을 통해 그들도 공활을 얻게 하려 함이라.

32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를 믿지 아니하는 데 가두어 두신 것은 친히 모든 사람에게 공활을 베풀려 하심이라.

33 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은 깊도다! 그분의 판단들은 헤아릴 수 없으며 그분의 길들은 찾아내지 못하리로다!

34 누가 주의 생각을 알았느냐? 누가 그분의 조언자가 되었느냐?

35 누가 그분께 먼저 드렸기에 그분께 다시 보답을 받겠느냐?

36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나오고 그분으로 말미암으며 그분께 돌아가나니 영광이 그분께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 제 12 장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살아 있는 희생물

1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공활에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 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2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검증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영적 선물

3 내게 주어진 은혜에 힘입어 너희 가운데 있는 각 사람에게 내가 말하노

니 각 사람은 자기에 대하여 자기가 마땅히 생각해야 할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을 나누어 주신 대로 맑은 정신으로 생각하라.

4 우리가 한 몸 안에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무를 가지고 있지는 아니하나니

5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요 각 사람이 서로 지체니라.

6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에 따라 우리가 다른 선물들을 가지고 있으니 대언이면 우리가 믿음의 분량대로 대언하고,

7 혹은 사역이면 우리가 우리의 사역하는 일로 섬기며,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섬기고,

8 권면하는 자는 권면하는 일로 섬기며, 주는 자는 단순함으로 그 일을 하고,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공활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그리스도인의 생활

9 사랑에 가식이 없게 하라. 악한 것을 혐오하고 선한 것을 굳게 붙들라.

10 형제 사랑으로 서로 친절하게 애정을 가지고 서로 먼저 존중하며

11 일을 게을리하지 말고 영이 뜨거운 가운데 주를 섬기며

12 소망 중에 기뻐하고 환난 중에 인내하며 늘 절박하게 기도하고

13 성도들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며 손님 대접에 힘쓰라.

14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15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슬피 우는 자들과 함께 슬피 올라.

16 서로를 향해 같은 생각을 가지고 높은 것들에 생각을 두지 말며 도리어 낮은 처지의 사람들에게 겸손히 행하고 스스로 지혜 있는 것으로 여기지 말라.

17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의 눈앞에서 정직한 일들을 예비하라.

18 가능하다면 너희가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라.

19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도리어 진노에 맡기라. 기록된 바, 원수 갚는 일은 내 것이니 내가 갚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였느니라.

20 그러므로 네 원수가 주리거든 그를 먹이고 그가 목마르거든 그에게 마실 것을 주라. 그리함으로 네가 그의 머리 위에 불타는 쏜을 쏘으리라.

21 악에게 지지 말고 도리어 선으로 악을 이기라.

### 제 13 장

#### 그리스도인과 세상 권력

1 모든 혼은 더 높은 권력들에 복종할지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권력은 없나니 현존하는 권력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셨느니라.

2 그러므로 누구든지 권력에 거역하는 자는 하나님의 규례를 거역하니 거역하는 자들은 스스로 정죄를 받으리라.

3 치리자들은 선한 일이 아니라 악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나니 그러므로 네가 권력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한 것을 행하라. 그러면 바로 그에게서 네가 칭찬을 받으리니

4 그는 너를 위한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네*께 선을 베푸느니라. 그러나 네가 악한 것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헛되이 칼을 차지 아니하니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요, 보복하는 자로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를 집행하느니라.

5 그러므로 너희는 진노 때문만이 아니라 양심을 위해서도 반드시 복종해야 하느니라.

6 이런 까닭으로 너희가 공세도 바치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바로 이 일에 계속해서 힘쓰느니라.

7 그러므로 모든 사람에게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주되 공세 받을 자에게 공세를, 관세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네 이웃을 사랑하라

8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누구에게든지 어떤 것도 빚지지 말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성취하였느니라.

9 이것 즉, 너는 간음하지 말라, 너는 살인하지 말라, 너는 도둑질하지 말라, 너는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 너는 탐내지 말라, 한 것과 다른 어떤 명령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너는 네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 안에 간략하게 포함되어 있느니라.

10 사랑은 자기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11 그뿐만 아니라 너희가 때를 알되 지금이 우리가 잠에서 깨어야 할 바로 그때임을 아나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믿었을 때보다 더 가까이 있기 때문이다.

12 밤이 거의 다 지나고 낮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행위를 벗어 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13 낮에 하듯이 우리가 정직하게 걷고 흥청거리거나 술 취하지 말며 침실에서의 문란함과 방탕에 빠지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자.

14 오히려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육신에게 기회를 주지 말라.

### 제 14 장

#### 자유 의 법

1 믿음이 약한 자를 너희가 받아들이되 의심에 찬 논쟁은 하지 말라.

2 어떤 사람은 자기가 모든 것을 먹어도 된다고 믿고 다른 사람은 악하

여 채소를 먹느니라.

3 먹는 자는 먹지 아니하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아니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셨느니라.

4 다른 사람의 종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그의 서거나 넘어짐이 그의 주인에게 달려 있으므로 참으로 그가 세워지리니 하나님께서는 그를 서게 하실 수 있느니라.

5 어떤 사람은 한 날을 다른 날보다 귀히 여기고 다른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 사람은 자기 마음속에서 완전히 확신할지니라.

6 날을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해 중히 여기고 날을 중히 여기지 아니하는 자도 주를 위해 중히 여기지 아니하며 먹는 자도 주를 위해 먹나니 이는 그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기 때문이라. 먹지 아니하는 자도 주를 위해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느니라.

7 우리 가운데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아무도 자기를 위해 죽지 아니하는도다.

8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주의 것이니라.

9 이 목적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일어나사 다시 살아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죽은 자들과 살아있는 자들의 주(主)가 되려 하심이라.

10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무시하느냐?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11 기록된 바, 내가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굴복하겠고 모든 혀가 하나님에게 자백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였느니라.

12 그런즉 이처럼 우리 각 사람이 자신에 관하여 하나님께 회계 보고를

하리라.

13 그러므로 우리가 더 이상 서로를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이것 즉 아무도 자기 형제의 길에 걸림돌이나 넘어질 기회를 두지 않을 것을 판단할지니라.

#### 사랑의 법

14 내가 주 예수님을 통해 알고 확신하건대 그 자체로 부정한 것은 하나도 없지만 어떤 것을 부정하다고 여기는 자에게는 그것이 부정하니라.

15 그러나 만일 네 음식물로 인해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제 네가 사랑으로 견지 아니하느니라. 네 음식물로 그를 파멸시키지 말라. 그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느니라.

16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17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18 이것들 안에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받아 주시며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느니라.

19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을 이루는 일들과 서로를 세워 주는 데 필요한 일들을 따를지니라.

20 음식물로 인해 하나님의 일을 망치지 말라. 모든 것이 참으로 순수하나 **남을** 걸려 넘어지게 하면서 먹는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악하니라.

21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즙도 마시지 아니하며 네 형제를 쓰러뜨리거나 걸려 넘어지게 하거나 악하게 하는 그 어떤 것도 **하지 아니하는 것이** 선하니라.

22 네게 믿음이 있느냐?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너 자신을 위해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허용하는 그것으로 인해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행복하다.

23 의심하면서 먹는 자는 정죄를 만나니 이는 그가 믿음을 따라 먹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무엇이든지 믿음에서 나지 아니하는 것은 죄니라.

## 제 15 장

약한 자들을 도우라

1 그러므로 우리 강한 자들은 약한 자들의 연약함을 담당해야만 하며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해서서는 아니 되느니라.

2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기쁘게 하여 그의 유익을 구하고 그를 세워 주어야 할지니라.

3 기록된 바, 주를 모욕한 자들의 모욕이 나를 덮쳤나이다. 함과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4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들은 우리의 배움을 위하여 기록되었으니 이것은 우리가 성경기록들이 주는 인내와 위로를 통해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5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그리스도 예수님을 따라 서로를 향해 같은 마음 갖는 것을 허락 하사

6 너희가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7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받아들으신 것같이 너희도 서로를 받아들이라.

8 이제 내가 말하노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 할례자들의 사역자가 되신 것은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들을 확증하려 하심이요,

9 또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긍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이방인들 가운데서 주를 시인 하며 주의 이름을 향해 노래하리이다, 함과 같으니라.

10 또다시 그분께서 이르시되, 너희 이방인들아, 그분의 백성과 함께 기뻐하라, 하시고

11 또다시, 너희 모든 이방인들아, 주를 찬양하라.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분을 찬미할지어다, 하시며

12 또다시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이방인들을 통치하기 위해 일어날 자가 있으리니 이방인들이 그를 신뢰하리라, 하느니라.

13 이제 소망의 하나님께서 너희가 믿는 가운데 모든 기쁨과 화평으로 너희를 충만하게 하사 성령님의 권능을 통해 너희에게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까지 복음 선포

14 내 형제들아, 나도 스스로 너희에 대해 확신하되 너희 역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충만하여 또한 서로를 훈계할 수 있음을 확신하노라.

15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인해 너희가 기억하도록 내가 어떤 부분에서는 더욱 담대히 너희에게 썼나니

16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제공함으로 이방인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자가 되고 이로써 이방인들을 바치는 일이 성령님을 통해 거룩히 구별되어 주께서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함이라.

17 그러므로 내게는 하나님께 속한 그 일들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랑할 것이 있나니

18 이는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려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용하사 말과 행위로,

19 강력한 표적들과 이적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의 권능으로 이루지 아니하신 그 일들 중에서는 어떤 것도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로써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사방으로 다니며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충만히 선포하였노라.

20 참으로 이렇게 내가 복음을 선포하려고 애써 왔으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서는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것은 내가 다른 사람의 기초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21 이것은 기록된 바, 그에 대하여 전해 듣지 못한 자들이 보며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 방문 계획

22 이런 까닭으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는 것이 많이 막혔으나

23 이제는 이 지방에 더 이상 일할 곳이 없고 또 이 여러 해 동안 너희에게 가려는 큰 소원이 내게 있어

24 언제든지 내가 스페인으로 여행하게 되면 너희에게 가리라. 만일 내가 먼저 너희와 사귄으로 어느 정도 만족을 얻을 수 있다면 나의 여행 중에 너희를 보기 바라며 또 너희가 나를 거기서 보내 줄 것을 바라노라.

25 그러나 지금은 내가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노니

26 이는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 얼마를 기부하는 일이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을 기쁘게 하였기 때문이다.

27 참으로 그 일이 그들을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들은 저들에게 빚진 자들이니 만일 이방인들이 저들의 영적인 것들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었거든 육신의 것들로 저들을 섬기는 것도 그들의 의무이니라.

28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이행하고 이 열매를 봉인하여 저들에게 준 뒤 너희에게 들러 스페인으로 가리라.

29 내가 너희에게 갈 때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복을 충만히 가지고 갈 것을 확신하노라.

30 형제들아, 이제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성령의 사랑으로 인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기도하는 가운데 나와 함께 분투하며 나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여

31 내가 유대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구출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을 위해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아들이게 하며

32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가서 너희와 함께 새

힘을 얻게 하라.

33 이제 화평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두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 제 16 장

뵈베를 추천함

1 내가 겐그레아에 있는 교회의 중 우리의 자매 뵈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2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의 마땅한 도리로 그녀를 받아들이고 무슨 일이든지 그녀가 너희를 필요로 하는 일에 그녀를 도울지니라. 뵈베는 여러 사람의 구조자가 되었고 또한 나의 구조자가 되었느니라.

성도들에게 인사 요청

3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나의 협력자들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인사하라.

4 그들은 내 생명을 위해 자기 목을 내놓았는데 나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의 모든 교회들도 그들에게 감사하고 있느니라.

5 또한 그들의 집에 있는 교회에 인사하라. 내가 매우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가야에서 그리스도께 첫 열매가 된 자니라.

6 우리를 위해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인사하라.

7 내 친족이요, 나와 함께 갇힌 자들인 안드로니코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 가운데서 주목받고 있으며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었느니라.

8 주 안에서 내가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인사하라.

9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협력자인 우르바노와 내가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10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을 받는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도볼로 의 집안에 속한 자들에게 문안하라.

11 내 친족인 헤로디온에게 문안하

라. 주 안에 있는 나깃수의 집안에 속한 자들에게 인사하라.

12 주 안에서 수고하는 드루배나와 드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한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13 주 안에서 선정된 루포와 그의 어머니 곧 나의 어머니께 문안하라.

14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마와 바드로바와 허메와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15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룸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16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17 형제들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리에 역행하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들을 주목하고 그들을 피하라.

18 그런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 배를 섬기며 좋은 말과 빼어난 말씀씨로 단순한 자들의 마음을 속이느니라.

19 너희의 순종이 모든 사람에게 널리 알려졌으므로 너희로 인해 내가 기뻐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선한 것에 대해서는 지혜롭고 악에 관해서는 단순하기를 내가 여전히 원하노라.

20 화평의 하나님께서 곧 사탄을 너희 발밑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

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의 친구들의 인사

21 내 동역자 디모데와 내 친족들인 루기오와 아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22 이 서신을 기록한 나 더디오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23 나와 온 교회를 접대하는 자 가이오가 너희에게 문안하며 도시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24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을 송축함

25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함에 따라 권능으로 너희를 굳게 세우실 분 즉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은밀히 간직되어 왔으나

26 이제는 밝히 드러나서 영존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대언자들의 성경기록들을 통해 믿음에 순종하게 하려고 모든 민족들에게 알려지게 된 신비의 계시에 따라 너희를 굳게 세우실 분

27 곧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광이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 로마 사람들에게 고린도에서 써서 겐그레아에 있는 교회의 중 보베편에 보내다.



# 구원이란 무엇인가?

인생은 너무 짧습니다.

더구나 인생의 앞날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언제라도 창조자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합니다(암 4:12).

“오늘 인생을 마감한다면 당신은 틀림없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마음이 상하셨다면 용서하십시오. 비록 마음이 상할지라도 이는 매우 심각하고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곧 끝나기 때문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본인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두 길 중 하나를 가고 있습니다. 하나는 영원한 생명의 길이고 다른 하나는 영원한 형벌의 길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은 길이므로 사람들에게 그다지 인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길이 넓어 많은 사람들이 찾습니다(마 7:13-14).

“독자께서는 지금 어느 길로 가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 사이에 연옥이 있다고 속이지만, 성경은 천국과 지옥 외에 제3의 장소는 없다고 분명히 말합니다(계 20:12-15; 21:2-27).

이처럼 인생이 짧고 영원이 분명히 존재한다면,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구원받았는가, 구원받지 못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직업, 건강, 성공, 명예는 모두 이 땅에서만 의미를 가지지만, 구원은 영원과 직접 연결된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일은 무엇보다도 구원받는 일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 중요한 문제를 막연하게 생각하거나, 나중에 미루거나, 아예 깊이 생각하지 않으려 합니다. 어떤 이들은 구원의 본질을 분명히 알지 못한 채 종교적 열심이나 선한 행위로 충분하다고 여깁니다. 또 어떤 이들은 하나님 존재 자체를 의심하거나, 인간의 이성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려 합니다. 이로 인해 구원의 문제는 더욱 혼란스럽고 멀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제부터는 이러한 혼란을 풀기 위해, 먼저 창조자 하나님의 존재를 살펴보고, 왜 인간에게 구원이 반드시 필요한지, 그리고 사람들이 흔히 빠지는 구원의 방해물은 무엇인지 설명하려 합니다. 이어서 성경이 말하는 구원 계획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향해 베푸시는 구원의 초청이 얼마나 분명하고 실제적인지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 독자께서 구원 문제를 더 분명히 이해하고, 자신의 영원한 상태를 진지하게 점검하는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 1. 창조자 하나님

미국의 유명한 링컨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sup>1)</sup>

1) ‘창조자 하나님’ 부분은 「하루 만에 꿰뚫는 기독교 진리」(맥스 앤더스 지음, 규장 출판사)에서 인용하였다.

사람이 세상을 보고서 무신론자가 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본다. 그러나 하늘을 보고서 어떻게 하나님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합니다. 이것이 구원의 첫 번째 초석입니다.

우리가 고고학자가 되어 한 무리의 조수들을 데리고 중남미 과테말라의 정글을 걷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우리는 뺨뺨한 초목을 칼로 베어 겨우 길을 열어 가면서 마야 문명의 유적이 있다고 확신하는 지점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정글의 뜨거운 열기와 땀, 모기, 온갖 벌레들이 진로를 방해합니다. 눈은 따끔거리고 발바닥은 타는 듯이 뜨겁고 온몸의 근육이 쭉십니다. 그래도 우리는 100년 넘게 자란 덩굴을 헤치고 정글을 뚫고 나갑니다.

그렇게 어느 지점에 이르자 마치 정글 바닥에서 거대한 녹색 다이아몬드가 불쑥 솟아오르는 것처럼, 열대의 덤불에 덮인 거대한 피라미드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마야 유적이 있을 것이라고 우리가 확신했던 지점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즉시 캠프를 설치하고 발굴 작업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몇 년 동안 탐사와 발굴이 진행됩니다. 이제 모험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곳에 마야 유적지가 있음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탐사를 시작하기 얼마 전, 우리는 비행기를 타고 과테말라 정글 상공을 날다가 바닥이 정사각형 모양인 둔덕을 발견했습니다. 순간 우리는 어떤 지적 존재가 의도적으로 그것을 만들었음이 분명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연은 바닥이 정사각형으로 이루어진 둔덕을 스스로 만들어 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즉시 그 지점의 위도와 경도를 기록하여 탐사에 착수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려 할까요? 중앙아메리카 정글 한가운데 고대 마야 문명의 유적지가 있을 것이라고 우리가 믿었던 원리와 같습니다. 목적과 의도가 담긴 대상을 발견했을 때는 그 이면에 '지적 존재'가 있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편이 합당합니다. 우주에는 존재 목적이 있습니다. 우주 자체가 그 이면에 '지적 존재'가 있음을 명백히 드러냅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몇 가지 타당한 이유를 제시하겠습니다.

**첫째 이유:** 모든 결과에는 원인이 있다.

이는 누구나 이는 상식 아닙니까? 실로 하나님께서는 우주의 존재를 해명하기에 충분할 만큼 광대하시고 위대하신 유일한 '원인'이십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는 모든 것이 어떤 사람에 의해 지어지지만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

(히 3:4)

우리는 정글 한가운데에 바닥이 정사각형으로 된 둔덕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 적절하게 설명을 해야 합니다. 우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주는 목적과 의도를 품고 있는 듯 보입니다. 그렇다면 우주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진화론은 지구의 생명체에 대해 하나님을 배제한 채 설명하지만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두 가지 입장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견해를 거부합니다. 다른 하나는 우주가

저절로 생겨났다는 가설입니다. 그러나 이는 명백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요구한다'는 관점에서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셨다고 믿는 쪽보다 우주가 우연히 생겨났다고 믿는 쪽이 훨씬 더 큰 믿음을 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둘째 이유: 지적 창조자의 존재

우주의 질서와 목적은 그 이면에 지적인 창조자가 계시다는 사실을 암시합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은 세상의 창조 이후로 분명히 보이며 만들어진 것들에 의해 이해될 수 있으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느니라. (롬 1:20)

우주는 분명히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존재에 대해 설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주는 분명한 질서와 계획과 목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책상 위에 시계 부품이 어질러진 상태와, 그 부품을 정교하게 짜 맞추어 시계를 작동시키는 상태의 차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난잡하게 어질러진 부품들의 기원에 대해 설명하는 일과 어떻게 그 시계가 정교하고도 절묘하게 조립되어 움직이는지 설명하는 일은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우주는 우리 눈앞에 존재할 뿐 아니라 정밀한 시계처럼 움직입니다. 정글의 정사각형 둔덕은 마야 문명을 암시합니다. 한편 우주는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고 소리칩니다.

### 셋째 이유: 인간의 창조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물의 영장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세 번째 이유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이들은 또한 자기 양심이 증언하며 자기 생각들이 서로 고소하거나 변명하는 가운데 자기 마음속에 기록된 율법의 행위를 보이느니라. (롬 2:15)

인간은 짐승과 다릅니다. 인간은 자신의 정체를 알고 싶어 합니다. 자신의 기원에 대해 알기를 갈망하고 자신의 미래에 대해 알기를 갈망하며 삶의 목적과 의미에 대해 알기를 갈망합니다. 인간은 다른 짐승보다 월등하고 다른 짐승보다 지적입니다. 양심을 가지고 있으며 영적인 세계를 느낍니다. 역사의 모든 문명은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짐승의 세계에는 이런 일들이 없습니다.

### 넷째 이유: 성경의 계시

성경은 자연과 인간을 정확히 보여 줍니다.

하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고 궁창이 그분의 손이 행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시 19:1)

성경은 과학 교과서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이 진리라면 과학과 모순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결코 과학과 모순되지 않습니다. 사실 현대 과학의 토대가 된 것은 성경입니다. 저 우주에는 분명히 어떤 의미가 있다고 믿는 사람들만이, 우주는 예측 가능한 법칙에 의해 통제되고 있다고 믿는 사람들만이 우주를 연구하려는 노력을 기울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인류에게 이러한 확신을 제공합니다.

시편 19편 1절이 말해 주듯, 하나님께서는 우주를 정교하게 설계하심으로써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나타내도록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8-20절에서 하나님께서 자연과 우리의 내적인 직관적 인식력을 통해 자신을 알리셨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경험은 이 사실을 입증합니다. 밤하늘에 광대하게 펼쳐진 별들을 보면 직관적인 인식이 자연스럽게 피어오릅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것이 분명해!”

물질적인 사안에 관한 성경의 언급은 정확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부분에 관한 성경의 언급도 정확하다고 믿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계시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간의 학문만으로는 증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으니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다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하느니라. (히 11:6)

유한한 인간은 무한한 하나님의 존재를 완전히 증명할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지적했듯이 하나님의 존재는 ‘증명’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실험실의 시험관이나 컴퓨터 자료 속에서는 발견할 수 없지만, 자연과 역사의 법정에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는 증거들, 이성적인 의심을 압도할 증거들, 그리고 방자한 인간의 마음을 설득하여 이성의 의심을 떨치게 할 증거들이 충분히 널려 있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싶지 않다면, 그는 믿지 않을 이유를 어떻게든 찾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할 만한 증거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불신은 곧 또 하나의 맹목적인 믿음이 됩니다. 반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자 한다면, 그는 믿을 만한 확실한 근거를 발견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을 만한 논리적, 철학적 근거들은 충분히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진화론이 우주의 복잡함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사실을 암시하는 강력한 물질적 증거 역시 수없이 많습니다.

현대의 유능한 과학자 중에서도 진화론에 의심을 제기하는 이들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진화론이 우주를 설명하지 못한다는 점에 동의하면서도 유일한 대안인 창조론이 자기 입맛에 맞지 않아, 진화론이 과학적으로 불가능함을 알면서도 이를 억지로 믿으려는 사람들도 상당수 존재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든지 믿음으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도 믿음이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도 불신이라는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질문은 “내가 믿음을 갖고 있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진화론을 믿을 것인가,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입니다.

왜 하나님의 존재를 믿을까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주의 존재와 그 정교함, 광대함, 목적과 설계, 그리고 인간의 독특함에 대한 가장 설득력 있는 설명을 제시하기 때문입니다.

## 2. 구원의 필요성

이제 구원의 필요성을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물건에는 메이커(제작자)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펜, 모자, 마이크, 책 등을 보십시오. 모두 메이커가 있습니다. 메이커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지지 않은 물건들을 판단하여 폐기 처분합니다. 즉, 설계가 있고 이에 따른 제품이 있으며, 그 제품을 판단하여 폐기 처분하는 과정이 반드시 따릅니다. 생산업자라면 누구나 이 일을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기독교는 사람을 만든 메이커, 즉 창조주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다른 모든 종교와 달리 기독교는 창조와 심판을 가르치는 믿음 시스템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찮은 물건에도 모두 메이커가 있는데, 물건을 설계하고 제작하는 고등 존재인 사람이 아무런 설계 없이 그냥 흙에서 생겨났다고 믿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논리적 모순을 믿고 있습니다.

아이작 뉴턴(Isaac Newton)이라는 훌륭한 과학자에게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뉴턴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과학을 추구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모든 만물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창조되었음을 믿었으나, 그 친구는 이를 믿지 않았습니다. 뉴턴이 하나님께서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셨다고 하자, 친구는 “그런 것들이 그냥 생겼지, 어떻게 설계가 되었겠나?”라며 반박했습니다.

어느 날 뉴턴은 그 친구를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초대하기 전, 뉴턴은 자기 집에 태양을 중심으로 행성이 도는 정교한 모형을 만들어 전시했습니다. 이를 본 친구는 “자네 이것을 어떻게 이렇게 멋있게 만들었나? 정말 훌륭하군!”이라며 감탄했습니다. 그러자 뉴턴이 시치미를 떼며 말했습니다. “아, 그것들은 그냥 생겼네.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졌다네.” 친구가 황당해하며 말했습니다. “자네 미쳤나? 어떻게 이런 것들이 그냥 생기나? 분명 누가 만들었겠지.” 그때 뉴턴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는 하늘의 저 별들이 다 그냥 생겼다면서? 달이고 태양이고 다 그냥 생겼다면서? 이 땅의 조그만 모형조차 만든 이가 있어야 존재하는데, 어떻게 저 거대한 우주가 그냥 생길 수 있겠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사람을 만드신 메이커가, 만들어진 사람이 자신의 목적에 부합하는 삶을 살았는지 살지 않았는지 판단하시는 때가 반드시 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물건도 부실함이 드러나면 판단하는 때에 불에다 놓고 소각해서 폐기 처분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목적에 따라 살지 않은 부실한 사람들을 모두 폐기 처분하십니다. 성경은 이를 지옥으로 보내는 심판이라고 말합니다.

구원받으려면 먼저 구원의 필요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즉, 내가 만들어진 존재임을 확인하고, 내가 만들어진 존재임이 확실하면 심판받을 때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메이커의 목적에 따라 살지 않은 사람은 폐기 처분되어 소각되는 때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무엇보다 먼저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하늘에서 뚝 떨어졌는가? 돌덩어리에서 나왔는가? 원숭이에게서 나왔는가? 아니면 정말 나를 만드신 창조자가 있는가?”라는 질문을 진지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 3. 구원의 방해물

다음으로 구원의 방해물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이 기계로 물건을 만들 때도 불량품이 생기지만, 이런 불량품은 대개 사람의 실수로 생깁니다. 사실 이 과정에서 물건 자체는 아무것도 못 하는 수동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라는 메이커는 사람을 그런 수동적인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처음부터 불량하게 만드시지도 않았습니니다. 사람과 물건의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일까요? 사람에게에는 자유 의지가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바로 자유 의지입니다. 자유 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겠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강제로 간섭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그 결과에 따라 폐기 처분만 하십니다.

이제 구원의 방해물인 '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과녁에서 벗어난 것을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과녁에서 벗어난 모든 것이 죄입니다.

우리가 배운 구구단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7 곱하기 7은 49'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7 곱하기 7은 50'이라고 하면 어떨까요? 또 다른 사람이 '7 곱하기 7은 100'이라고 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선생님께서 두 사람 모두에게 0점을 줍니다. '7 곱하기 7은 49'가 아니면 모두 0점입니다. 이때 50이라고 답한 사람이 "나는 50이라고 답했으니 1만 틀렸고 저 사람은 100이라고 답했으니 51이 틀렸는데, 왜 똑같이 0점인가요? 나는 90점을 주고 저 사람은 0점을 주어야 하지 않나요?"라고 항변한다면 선생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분명히 그럴 수 없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오직 유일한 정답은 '49'뿐이며, 여기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0점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준, 과녁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를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과녁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모두 죄가 됩니다. 구구단과 같습니다. '7 곱하기 7'의 경우 답은 오직 하나, 즉 49밖에 없습니다. 49.1도 틀립니다. 49.000001도 틀립니다. 오직 유일한 답은 49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서 크게 벗어나든 작게 벗어나든 모두 죄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따라서 세상의 모든 사람은 죄의 문제를 안고 있으며, 모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죄가 없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죄가 구원을 가로막는 가장 큰 방해물입니다. 죄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고민할 때 반드시 "나는 죄인인가, 아닌가?"라는 질문을 마주해야 합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절실히 깨달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죄에 대해서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라고 말하면 많은 이가 "나는 큰 죄를 짓지 않았습니니다."라고 대답합니다. 대개 죄인을 흉악범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특히 마음이 착하고 선하게 산 사람들일수록 구원받기가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들은 대개 "나는 죄를 지은 일이 별로 없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저 사람은 저런 죄를 지었지만 나는 죄지은 일이 별로 없습니다. 남에게 해를 끼친 적이 없으니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사과나무 이야기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사과나무는 왜 사과를 맺을까요? 사과나무 안에 사과나무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왜 죄를 짓습니까? 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여러분, 죄를 짓기 때문에 지옥에 갑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이에 대한 대답은 “아닙니다.”입니다. 죄를 지어서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죄를 짓습니다. 저 역시 목사지만 구원받고 목사가 된 후에도 매일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지어서 지옥에 간다면 저 역시 지옥에 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죄를 지어서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지옥에 갑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과 반대되는 성품을 갖고 있어서 하나님과 어울릴 수 없으므로 지옥에 갑니다. 죄의 생명이 우리 속에 있으므로 자연스럽게 죄를 짓게 됩니다.

사과나무가 필연적으로 사과를 맺듯이 우리 역시 필연적으로 죄를 짓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여러 종류의 죄들이라는 잔가지들 아무리 치워 봐도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치워야 할까요? 죄를 짓게 만드는 죄의 생명이 우리에게서 사라져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누구에게 전도하러 갈 때에도 죄인이 무엇을 뜻하는지 정확히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나는 간음하지 않았고 강도질도 하지 않았으며 다른 사람에 비해서 지금까지 선한 삶을 살아왔습니다.”라고 말하면 더욱 잘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성경이 죄인이라고 말할 때 그 의미를 잘 이해하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을 깨닫는 첫걸음입니다. 우리는 다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첫 사람 아담의 죄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예수님을 믿는 목적은 바로 죄의 생명(혹은 죄성)을 없애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이 죄성을 없애려고 할 때 우리는 이것이 과연 우리 힘으로 가능한지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죄성을 치우는 일이 과연 우리 힘으로 가능할까요?

우리는 역사를 공부하면서 마르틴 루터의 변화에 대해 들었습니다. 루터는 전통에 따라 각종 고행을 하고 자기 절제를 하며 선행을 했습니다. 수도원에서 것처럼 열성을 내어 수도 생활에 임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작은 죄라도 모두 스승 사제에게 고백했습니다. 로마 시내 전체의 유적들을 참배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평안이 생기지 않았으며 죄 문제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고행이나 선행 같은 것으로는 인간 내부의 죄를 없앨 수 없음을 분명히 보여 줍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증언하는 바입니다.



죄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구원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는 죄가 사람의 구원 문제의 방해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오�히려 너희 불법들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들이 그분의 얼굴을 너희에게 숨겼으므로 그분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니 (사 59:2)

#### 4. 구원 계획

이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펜 공장에서 펜들이 생산되어 벨트를 타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펜이 다른 펜들을 쫓 살펴보고는 잘못된 펜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펜이 잘못된 펜을 고쳐 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이를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주변을 보니 저 사람이 잘못된 것이 보입니다. 그 사람이 지은 죄가 보입니다. 물론 그 사람도 우리를 보면 우리가 죄를 지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나 죄를 지은 다른 사람이 다른 이의 죄를 없애 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종류가 같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죄인이므로 죄의 문제를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 고치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펜이 잘못되면 누가 고쳐 줄 수 있습니까? 펜을 설계한 사람만 고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을 설계한 분만이 사람에게 생긴 문제를 고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룩하다'는 말은 '따로 구분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종류가 다른 '따로 구분된 분'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고 우리는 창조를 받은 자로서 완전히 종류가 다릅니다. 생각과 행동 등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과 사람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사람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고칠 수 있습니다.

무함마드, 소크라테스, 부처, 법정 승려, 김수환 추기경, 마더 테레사 등과 같이 사람들의 눈에 선하게 보이는 사람들도 모두 하나님 앞에 가서 서면 다 죄 덩어리 인생에 지나지 않습니다. 교황, 신부, 목사도 다 마찬가지로 죄 덩어리입니다. 대통령, 장관, 기업의 총수, 교수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별거벗고 하나님 앞에 가서 서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시뻘건 죄를 가지고 있는 죄인으로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인류 가운데는 사람을 구원할 존재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짐승은 죄를 안 지으므로 일시적으로 짐승을 죽여 죄를 덮을 수는 있지만, 짐승이 사람을 위한 '영구한 죄 가리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사람에게 대한 사랑을 십자가에서 보여 주셔야 합니다. 이 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사람의 죄가 하나님의 본성에 너무나 크게 위배되지만 사람이나 온 우주 공간의 창조물은 이 죄 문제를 다룰 수 없으므로 하나님께서 직접 이 문제를 다루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창조자, 심판, 죄인이라는 성경적 정의를 바르게 이해하고, 죄와 죽음의 문제를 과연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자신의 운명과 앞날을 깊이 숙고하는 사람만이 성경이 말하는 참된 구원에 이를 수 있음을 부디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 5. 구원 초청

지진이나 홍수, 비행기 충돌 사고 등의 재난 소식을 접할 때마다 우리는 많은 사람의 죽음을 보고 굉장히 놀랍니다. 그런데 사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비극은 구원받을 수 있는 선한 사람들이 멸망을 받는 일입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라는 사악한 도시들을 심판하신 일은 아주 무서운 사건이었습니다. 그 도시들에 살던 사람들은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불과 유황에 의해서 모두 멸망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안에 감추어진 가장 큰 비극은 그 사람들이 멸망당했다는 일이 아니라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9장 14절은 롯이 자기 사위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경고를 했을 때 그들이 “그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고 기록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분명한 경고를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충분히 구원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죽었습니다.

구약 시대 노아의 대홍수는 전 세계적인 재난이었습니다. 창세기 7장 11-12절을 읽어 보면 “그날에 큰 깊음의 모든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들이 열리며 비가 밤낮으로 사십 일 동안 땅 위에 있었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이 목숨을 건지기 위해 대홍수 속에서 얼마나 황급해하며 허우적거렸겠습니까? 예수님께서서는 복음서에서 “홍수가 나서 모든 사람들을 다 휩쓸어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과연 이 사건이 정말 가장 큰 비극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더 큰 비극은 홍수가 시작되기 전에 그들에게 120년이라는 기간, 즉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的时间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이 그것을 알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3장 10절은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라고 기록합니다. 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셔서 자신의 ‘유일하게 낳은 아들’, 즉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사 인류 역사에서 가장 큰 일을 하셨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셔서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은 “그분(예수님께서) 우리의 범죄들로 인해 넘겨지셨으며 [죽으셨다가] 우리를 의롭다 하시려고 다시 일으키지셨느니라.”라고

기록합니다.

지금 당신은 가장 큰 비극을 피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상에 퍼지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5장 20절은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라고 경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주신 가장 큰 사명은 이제 곧 끝이 납니다.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는 사건들은 정확하게 예언의 말씀들을 이루고 있으며, 아주 단순한 사람들조차도 우리가 말세에 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에게 여쭙고 싶습니다.

“당신은 창조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였습니까?”

당신은 당신의 죄로 인하여 피를 흘리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원자로, 주님으로 받아들이셨습니까? 당신은 영생을 얻었습니까?

어쩌면 당신은 “아니요.” 혹은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대답할지도 모릅니다.

만일 당신이 그렇게 대답한다면 확실히 당신에게 가장 큰 비극이 닥칠 것입니다. 그 비극이 무엇이나고요? 당신이 영원히 멸망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큰 비극을 맞이하지 말고 지금 이 시간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께로 나아오십시오. 구약 성경 이사야서 55장 6절은 “너희는 주를 만날 만할 때에 그분을 찾으라. 그분께서 가까이 계실 때에 그분을 부르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의 마음에 어둠이 있거나, 당신의 과거 죄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거나 혹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다면 이제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용서와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으십시오. 예수님께서서는 요한복음 6장 37절에서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책을 읽고 이 내용이 당신에게 의미하는 바를 알게 되었다면, 이 책을 옆으로 밀어 놓고 예수 그리스도께 간구하십시오. 진정으로 회개하며 다음과 같이 예수님께 기도하십시오.

예수님, 저는 제가 죄인임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제 힘으로는 이 죄의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올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주님께서 저를 위해 피를 흘리고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저도 주님으로 인해 오직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아 부활의 소망을 갖고 영원히 살기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주 예수님을 저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해서 당신은 생애에서 가장 큰 비극, 즉 구원받을 수 있었는데도 영원히 멸망당하는 파멸을 피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노아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의 경고를 “몰랐다.”고 기록하며, 롯 당시 사람들은 이를 “농담으로 여겼다.”고 기록합니다.

이제 당신은 똑같은 하나님의 경고에 대해 무어라고 답하시겠습니까?

# 구원 예화

## 창조자 하나님

### — 모래 위의 발자국

한번은 무신론자인 프랑스 과학자가 아랍인 가이드와 함께 사하라 사막을 횡단하고 있었습니다. 그 아랍인은 하나님과 기도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길을 잘 모르거나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무릎을 꿇고 바른길로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과학자는 이러한 행동이 매우 못마땅하고 짜증이 나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어떻게 아시오?” 그러자 그 아랍인이 엄숙하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젯밤 어둠 속에서 우리 텐트 옆을 지나간 게 낙타가 아니라 사람이었음을 어떻게 아십니까?” 그러자 그 무신론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야 모래 위의 발자국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소?” 그러자 아랍인은 대답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대자연 속에 적혀 있는 하나님의 발자국을 봅니다. 태양, 달, 별들이 그분의 발자국입니다. 자연의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위대함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일은 우연히 생겨난 일이 아닙니다.”

그분께서는 북쪽을 빈 곳에 펼치시며 땅을 허공에 매다시고 물들을 자신의 뽁뽁한 구름 속에 싸매시나 구름이 물들 밑에서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욥 26:7-8)

## 죄와 은혜

### — 죄는 논리적이지 않다

수영을 못하는 전갈이 강을 건너기 위해 거북이에게 다가가서 등에 태워 달라고 정중히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거북이는 “미쳤냐?” 하고 필적 뛰었습니다. “내가 수영하는 동안 네가 나를 쏘면 나는 물에 빠져 죽잖아.” 그러자 전갈은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를 쏘 리가 있냐? 내가 죽으면 나도 같이 죽게 되는데. 그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 이런 논리적인 설득에 거북이는 “맞아. 그렇군.” 하고는 등에 전갈을 태우고 강을 건넜습니다. 그런데 강의 중간에 왔을 때 전갈은 그만 강한 침으로 거북이를 쏘아 버렸고 둘은 같이 바닥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이때 거북이가 가라앉으면서 전갈에게 힘없이 물었습니다. “내가 나를 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데 왜 쏘지?” 그러자 전갈은 다음과 같이 슬프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논리와 전혀 상관없는 일이야. 그것이 내 본성이거든.”

### — 죄인은 영적으로 눈먼 사람이다

어느 목사가 영국의 글래스고(Glasgow)에서 열심히 옥외 집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설교의 결론을 내릴 즈음에 어떤 불신자가 앞으로 나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 양반, 나는 천국도 지옥도 믿지 않소. 하나님과 그리스도도 믿지 않소. 나는 그런 것들을 본 적이 없소이다.” 그러자 옆에 검은 안경을 낀 한 눈먼 사람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이 부근에 클라이드 강이 있지만 나는 믿지 않소. 여기 사람들이 많이 서 있지만 나는 믿지 않소. 나는 그들을 본 적이 없소. 나는 날 때부터 눈먼 사람입니다.” 이 눈먼 사람이 말한 바가 바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영적으로 눈먼 사람들은 아무것도 볼 수 없으며 자기가 죄인임을 알지 못합니다.

#### — 죄인은 죄의 무게를 느낄 수 없다

출랑거리는 한 청년이 목사에게 다가와 비꼬듯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께서서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죄 짐을 지고 다닌다고 하셨지요. 그런데 저는 도대체 아무 짐도 느끼지 못합니다. 그 죄 짐은 얼마나 됩니까? 10킬로그램쯤 됩니까? 아니면 80킬로그램쯤 됩니까?” 그러자 목사는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당신이 죽은 사람 위에다 400킬로그램 짜리 짐을 올려놓으면 그 시체가 무게를 느낄까요?” “아뇨, 죽은 사람은 무게를 못 느끼지요.”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죄의 무게가 무거운지 가벼운지 알 수도 없으며 전혀 느낄 수 없습니다.” 그 말을 들은 청년은 묵묵부답이었습니다.

#### — 은혜의 본질

어떤 사람이 한 달 동안 일하고 그 대가로 백만 원을 받았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 보수입니다. 이는 일한 수고에 대한 정당한 대가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백만 원을 받았다면, 이는 보수가 아니라 은혜입니다. 이 간단한 예시는 은혜와 보수의 차이를 분명하게 보여 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도 이와 같습니다. 구원은 사람의 행위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아무 자격 없는 죄인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아무리 은혜라 해도 영원한 생명을 거저 받는다는 사실을 이해하기 어렵고, 최소한 사람도 무엇인가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어떻게 주시는지 생각해 보면 답은 분명해집니다. 공기와 물과 햇빛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반드시 필요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값을 치르고 사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특정한 사람만 누리도록 제한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만일 이러한 것들이 돈이나 자격에 따라 주어진다면, 이 세상에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적을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영생은 사람에게 가장 필요하며 동시에 너무나 귀하고 값비싼 것이어서, 사람이 노력이나 행위로 벌거나 값을 치르고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대신 치를 수 없는 그 값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다 지불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며 죽으심으로 영생의 대가를 완전히 치르셨습니다.

따라서 사람에게 남은 일은 무엇을 더 보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완성된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영생은 분명 거저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그러나 이는 결코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 대가 없이 받는 이 구원 뒤에는 하나님의 아들께서 치르신 엄청난 희생과 대가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 — 이미 전쟁은 끝났다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났는지도 모르고 잡혀서 죽을까 봐 30년 동안이나 필리핀 정글

속에서 숨어 지내다가 구조받은 한 일본인에 대한 기사가 신문에 보도되었습니다. 그는 전쟁이 끝났는지 몰랐기 때문에 공포와 위험 속에서 떨며 30년이라는 긴 세월을 허비했습니다. 나중에 구출되어 전쟁이 끝난 지 벌써 30년이나 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 그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그는 곧바로 비행기를 타고 고국으로 돌아가 사랑하는 가족들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수많은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음을 모른 채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공포 속에 살고 있습니다. 만일 그들이 이미 예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하셨음을 알기만 하면 곧바로 죽음의 권세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승리를 선포하시고 누구든지 믿음으로 자신에게 나오면 값없이 거저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모르면 그 큰 은혜가 그 사람에게는 전혀 은혜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은혜를 전파하는 자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 — 수확할 때가 가깝다



지갑을 꺼내서 그 안에 카드가 몇 개나 들어 있는지 세어 보시기 바랍니다. 신용 카드, 현금 카드, 주민 등록증, 사원증 등. 또한 여권, 자동차 면허증, 보험 증서, 은행 계좌, 집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e-mail) 주소, 각종 비밀번호 등 외워야 할 정보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코크레인(Peter Cochrane) 교수는 이런 모든 정보가 스마트카드의 실리콘 칩 하나에 모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물론 직업, 학력, 병력 등도 모두 그 칩 안에 수록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칩에다 단파 무선 송수신기를 추가하고 당신의 피부 밑에 이식하면 더 이상 그런 정보를 외우거나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이런 모든 제약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세관도, 은행도, 이민국도 그저 걸어 들어가기만 하면 컴퓨터가 그 안의 정보를 읽고 다 처리해 줍니다. 현금 인출기나 쇼핑센터에서도 컴퓨터가 정보를 읽고 모든 작업을 수행하므로 계산대 앞에 가서 길게 줄을 설 필요도 없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자유로운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코크레인 교수는 10년 내에 이런 일이 현실로 다가온다고 말합니다.

(1998년 3월 26일, 싱가포르의 『The Straits Times』 신문 커버스토리에서)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로운 자나 매인 자에게 그들의 오른손 안에나 이마 안에 표를 받게 하고 그 표나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의 수를 가진 자 외에는 아무도 사거나 팔지 못하게 하더라. (계 13:16-17)



## 지금 어느 길로 가고 계십니까?

인생은 매우 짧습니다. 더구나 인생의 앞날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언제라도 창조자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오늘 인생을 마감한다면, 당신은 틀림없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이 마음을 불편하게 한다면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비록 불편하더라도, 이 질문은 매우 심각하고 진지하게 생각해야 할 질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결코 길지 않으며, 언제 끝날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본인이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두 길 중 하나를 걷고 있습니다. 하나는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영원한 형벌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성경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을 찾는 사람이 적으며,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을 가는 사람이 많다고 분명히 말합니다(마태복음 7장 13-14절)입니다.

“독자께서는 지금 어느 길로 가고 계십니까?”

성경은 모든 사람이 영원을 향해 나아가고 있으며, 그 끝은 천국 아니면 지옥임을 분명히 보여 줍니다. 인생이 이처럼 짧고 영원이 분명히 존재한다면,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구원받았는가, 구원받지 못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 책에 실린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과 로마서를 읽는 가운데 독자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로 영접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말씀이 독자의 영원한 상태를 진지하게 점검하고, 참된 소망과 확신 위에 서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며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취할지니라(요한계시록 22장 17절).



#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상태와 구원의 방법과 죄인의 운명과 신자의 행복을 담고 있다. 성경의 교리들은 거룩하고 그 훈계들은 구속력이 있으며 그 역사들은 진실하고 그 결정 사항들은 바꿀 수 없다. 성경을 읽어 지혜롭게 되고 성경을 믿어 안전을 얻으며 성경의 내용을 실천하여 거룩한 자가 되라. 성경은 너를 인도할 빛과 너를 지탱할 음식과 너를 기쁘게 할 위로를 포함하고 있다. 성경은 여행자의 지도요, 순례자의 지팡이요, 항해사의 나침반이요, 군사의 칼이요, 그리스도인의 현장이다.



성경 안에서 낙원이 회복되고 하늘이 열리며 지옥이 그 모습을 드러낸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의 주인공이요, 우리의 행복이 성경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경의 목적이다. 자주 그리고 천천히 기도하는 심정으로 성경을 읽으라. 성경이 네 기억 속에 박히게 하고 마음을 지배하게 하며 발걸음을 인도하게 하라. 성경은 부의 보고요, 영광의 낙원이요, 기쁨의 강이다.

네가 살아 있을 때에 주께서 이 성경을 주셨으니 또한 심판 때에 이것을 펴시고 영원토록 너를 기억하실 것이다. 성경은 최고의 책임을 요구하여 수고에 대해서는 최고의 보상을 주되 그 안의 거룩한 내용들을 무시하는 자는 다 지옥 불로 정죄할 것이다. [작자 미상]

이 책의 성경 말씀을 읽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가까운 곳에 있는 '성경대로 믿고 가르치는 교회'를 찾아가 믿음의 교제를 이어 가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가 말씀 안에서 자라고, 바른 신앙과 삶을 배워 가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공동체입니다.

